HANURI TOUR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우수대리점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개별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855-388-4141
1001 S.Vermont Ave. #209, Los Angeles, CA 90006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December 8, 2016 Vol. 557

LA동부교역자협의회 주최 연합성가제가 4일 할렐루야한인교회에서 열렸다.

'십자가' 은혜로 하나되는 연합성가제

2016 LA동부지역 교회연합 연합성가제 은혜 가운데 성료

2016년 LA동부지역 연합성가제가 4일 오후 5시 할렐루야한인교회(담임 송재호 목사)에서 열렸다. 1부 예배와 2부 성가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할렐루야한인교회 본당을 가득 메운 채 은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LA동부지역 7개 교회가 참여해 수준 높은 공연과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송재호 목사(LA동부교역자협의회 회장)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계 4장1~11) 주제 말씀 선포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로 주의 보좌로 나아가는 은혜를 입은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전했다.

뜨겁게 중보하는 기도회에서는 △미국 정부가 영적으로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정치적 안정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LA동부지역의 영적 회복과 차세대를 위해 각각 기도했다.

이날 성가제에는 선한목자교회(담임 고태형 목사), 아름다운교회(담임 고승희 목사), 글로발선교교회(담임 김지성 목사), 유니온교회(담임 김신일 목사), 선한청지기교회(담임 송병주 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담임 이승준 목사) 등이 참여했다.

할렐루야한인교회와 엠마오교회 연합찬양대가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등을 합창한 후 모든 참석자들이 다함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할렐루야"를 합창하며 모든 순서를 은혜롭게 마쳤다.

한편 LA동부교역자협의회는 지난 부활절 연합예배와 이번 연합성가제를 통해서 모은 헌금을 신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이인규 기자

116국가·203언어·6백만부 해외성서 보급

대한성서교회…제126회 정기이사회에서 밝혀

대한성서공회 제126회 정기이사회가 11월 29일 오전 서초 성서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금년에는 지난해에 비하여 91,437부가 적은 477,117부의 성경을 국내에 보급하고 금년 한 해 동안 116개 나라에 203개 언어로 지난해보다 25,168부가 증가한 총 6,096,885부의 해외 성서를 보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의현 사장은 사장보고와 사업보고를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고, "개역개정판 성경전서는 374,448부가 보급되어, 지금까지 총 8,988,286부가 보급됐고, 그동안 국내 출판사들이 본 공회로부터 개역개정판 본문 사용에 대한 저작권 허락을 받아 출판한 주석성경 10,822,079부를 포함하면, 2천여만 부의 개역개정판 성경이 보급됐다"고 전했다.

또 권 사장은 "1973년 해외 성서 보급을 시작한 이래 총 1억6천4백여만 부를 제작하여 보급했다"고 밝히고, "최근에는 많은 성서공회들이 본 공회에 성서 읽기와 연구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개발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서, 본 공회에서 독자적으로 어린이 그림 성경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성경 관련 콘텐츠 전문 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들을 위한 해설 성경도 개발하여, 영어, 불어, 스페인어 등 주요 언어로 출판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권 사장은 "세계 성서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계성서공회연합회 본부에 지원하는 재정적 인적 지원과는 별도로, 성경 제작과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자립성서공회들에 성경을 제작하여 무상으로 기증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2008년 이전에는 부분적으로 성서 기증 사업을 시행하여 오다가 200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9면에 계속]

'한인 목회의 미래와 차세대 컨퍼런스' 열린다

NTS West 주최·PCUSA노회 후원 12월 12일 라사디나 웨스틴호텔에서

NTS West(New Theological Seminary of the West, www.ntswest.org)가 한인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12일(월) 목회자 컨퍼런스를 연다. 패서디나의 웨스틴호텔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다. PCUSA(미국장로교) 내 남가주 지역 교회를 관장하는 남가주-하와이 대회와 그 산하의 로스랜초스 노회, 샌퍼난도 노회, 샌가브리엘 노회가 이 세미나를 후원한다.

컨퍼런스는 "A Gathering of Korean American Pastors to Reflect on the Future of Korean American Ministry in Southern California"란 주제로 열린다. 이승현 총장(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이 "The Roles of the Immigrant Korean Church in the 21st Century"란 주제강연을 전하고 이어 최훈진 목사(PCUSA 산하 전국 아시안 아메리칸 리더십 개발부 전 스태프)가 "Passing on the Faith to the Next Generation and Beyond", 강일준 목사(한양장로교회, PCUSA 샌퍼난도 노회장)가 "Educating for the Future"란 제목으로 세미나와 토론을 이끈다.

모든 강사가 PCUSA 목회자이긴 하지만 행사를 주최하는 NTS West는 다민족, 초교파 신학교를 지향하고 있으며 컨퍼런스 자체도 한인 이민목회의 미래와 차세대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교단과 교파에 관계 없이 한인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들의 참석이 기대된다.

[관련기사 2면에 계속]

"성경번역가 박해 계속 증가"

위클리프협회…성경번역자들 위한 기도 요청

위클리프성경번역선교회에 소속된 위클리프협회(Wycliffe Associates, WA)가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기도를 요청했다.

브루스 스미스 회장은 "문자 그대로 매주마다 새로운 박해 소식을 접하고 있다. 성경 번역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영적 전쟁은 '새로운 일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역자들이 새로운 언어를 번역하기 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모든 일들이 예상대로 진행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말했다.

사역자들이 아프기도 하고, 어떤 설명도 없이 체포되거나 감옥에 갇히기도 하며, 일부는 고문을 당한다.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한다. 이로 인해 사역자들의 가족들은 사역을 지속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지기도 한다. 한 사역자는 사역을 시작한 첫 날 잠을 자던 중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고 한다.

스미스 회장은 "올해 기도의 능력을 많이 목도했다. 성경 번역 사역은 기도 없이는 전진할 수 없다. 우리가 말씀의 권위를 갖고 사역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한다면, 그들이 강해질 수 있고,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사역도 더욱 부드러워지고 빨라질 것"이라며 기도를 요청했다.

기독교를 극렬하게 반대하는 지역에서 심각하고 잔인한 박해가 일어난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신변 안전상의 문제로 박해받는 번역가들의 위치는 알리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10면에 계속]

"예수영광을 따라 광야로 나선 순례자들의"
기독교 대한감리회 빈들교회
담임목사 : 김 용 조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관상기도회(금) 오후 8:00
32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818)518-0033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교회및 자선,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LA사랑의교회 제4기 임직예배에 초대합니다

LA사랑의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 가운데 제3기 장로와 제4기 안수집사 및 권사들을 세우는 임직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몸을 낮추는 섬김과 은밀한 데서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역을 겸손으로 감당할 것을 다시 각오하는 이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새롭게 임직을 받는 분들에게 권면과 격려를 아낌없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LA사랑의교회 담임목사 김기섭 외 교우일동 드림

일시: 주후 2016년 12월 11일(주일) 오전 11시 (주일2부 예배시)
〈예배 후에 정성스럽게 준비한 점심식사가 제공됩니다.〉
장소: 버질중학교 오디토리움 - 152 N.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LA한인타운 1가와 버몬트 코너) 주차장은 1가 선상에 위치

시무장로

장희근 인치훈 이영섭

명예장로

김문근 최 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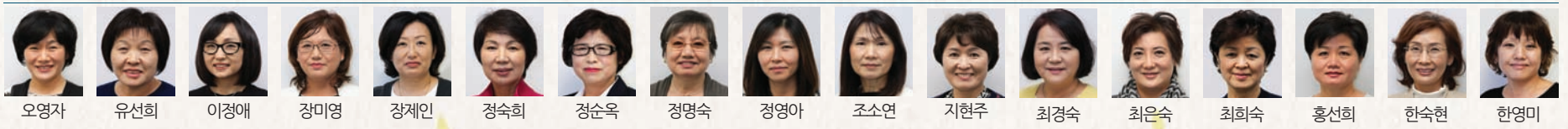
안수집사 (가나다순)

김기현 김덕길 박영백 박광수 백원준 송제호 송준현 오태훈 이동준 이상윤 이상훈 이용석

이중민 정경석 정재현 정영호 팽정태 홍영일 한성훈

시무권사 (가나다순)

고미라 김경녀 김민영 김종숙 노혜선 문정애 박정남 신수현 송현자 이선옥


오영자 유선희 이정애 장미영 장제인 정숙희 정순옥 정명숙 정영아 조소연 지현주 최경숙 최은숙 최희숙 홍선희 한숙현 한영미

협동권사

권명옥

명예권사 (가나다순)

이이분 주영자 최기순 한란자

LA사랑의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8시 / 2부 오전11시 / • 대학청년부 KM 오후2시 22분 / EM 오후2시
152 North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12 전화 213-386-2233 www.LAsarang.com

OC교협이 이·취임 감사예배를 드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OC교협 이호우 신임 회장·김기동 신임 이사장 취임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OC교협)가 "기도로 섬기는 OC교협"이란 표어를 내걸고 새 장을 열었다. 4일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에서 이·취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호우 신임 회장은 "외모로 보나, 공부로 보나 다 부족하기만 한 저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며 취임사를 시작했다.

그는 "주님께 무릎 꿇는 기도로 교회 공동체와 지역사회, 이웃을 섬기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호우 신임 회장과 함께 김기동 신임 이사장, 전준홍 신임 후원이사장이 취임했다. 박희민 목사(나성영락교회 전 담임), 강순영 목사(JAMA 대표), 영 김 전 하원의원 등이 참석해 축사했다.

박희민 목사는 "소수가 아닌 다수가 참여하는 교협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며 기도하라, 이단 세력에 대처하라,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 영적으로 각성하라, 섬김의 리더십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당부했다.

영 김 전 하원의원은 자신의 의정 임기 중 기도로 힘을 모아 준 OC 교계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취임식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는 한기홍 목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협이 되자"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준형 기자

LA사랑의교회 탄생 10주년 감사 기념 음악회가 12월 3일 한인타운 내의 버질중학교 강당에서 열렸다.

"LA사랑의교회 10주년 기념 음악회 〈루디아〉 미주 초연"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LA사랑의교회(담임 김기섭 목사)가 감사 기념 음악회에서 오라토리오 〈루디아〉를 연주했다.

미주 초연 〈루디아〉는 신학자이자 음악가인 故 김홍전 목사의 작품이다. 1914년 충남에서 태어난 김 목사는 서울 경신학교를 졸업하고 드와이트 말스베리 선교사로부터 작곡과 피아노를 배웠다. 해방 후 김 목사는 전주 미 군정지사의 수석고문 및 보좌관으로 일했고 6.25 시기에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당시 한국의 상황을 미국에 알리는 역할도 했다. 리치몬드에 있는 유니온신학교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대전대학 교수, 관동대학 이사장, 도쿄기독교대학 구약학 교수, 성약교회 담임을 역임했으며 1974년 캐나다로 이민 갔다가 2003년 세상을 떠났다.

평생 그는 86권의 서적을 저술했는데 그의 책들은 2016년 기준으로 65만권이 판매됐다. 그가 지은 찬송도 무려 188곡에 달하는데 이중 〈루디아〉는 일제 시대에 청년 김홍전이 지은 작품으로 룻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걸작으로 꼽힌다.

황광선 지휘자가 〈루디아〉 중 50 곡을 LA사랑의교회 성가대, 메조 소프라노 심현정, 소프라노 사라 정, 소프라노 김은혜, 소프라노 오영자, 알토 김지영, 테너 오위영과 함께 무대에 펼쳐냈다.

〈루디아〉 연주가 끝난 후 2부 순서로는 헤븐스하모니합창단, 남가주사랑의교회 카리스찬양대와 오케스트라, 소프라노 오영자와 테너 이영섭, LA아가페남성중창단 등이 각각 축하 공연을 펼쳤다.

김준형 기자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3·7·21 재능캠프
얼바인 홈스테이
정착 써비스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USA Tel : (949) 329-8222
Email : shelby.moon65@gmail.com
www.Mylvydream.com

www.saseducation.weebly.com
SAS 인가컨설팅,Inc
직업학교, 어학원, 종교특례대학, 일반대학, 데이케어/프리스쿨, I-20신청, 연방인가, 온라인교육사이트
대표 Paul Kim, Ph. D
summitus37@gmail.com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컨퍼런스와 학교를 소개하는 기자회견이 11월 30일 파사데나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이 기자회견에는 학교의 탐린슨 이사장, 김영성 이사, 도은석 이사, 강일준 자문위원과 컨퍼런스 강사인 최훈진 목사, 이승현 총장이 참석했다.

"한인 목회의 미래와 차세대 컨퍼런스"

NTS West 주최, PCUSA 노회들 후원…12월 12일 개최

[1면으로부터 계속] 한국어와 영어 모두 통역이 이뤄지기에 1세, 2세 관계없이 참석할 수 있다. 한편 주최 측은 이 행사에 PCUSA 교단 내에서 한인 목회와 연관 있는 타민족 목회자, 노회 관계자, 대회 관계자들도 초대할 계획이다. 참석 비용은 무료지만 점심 준비를 위해 예약을 권한다.

컨퍼런스를 주최하는 NTS West는 2012년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 New Presbyterian Seminary Southern California란 비영리단체로 설립된 후 현재는 NTS West란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아직 주 정부 사립대학교육국(BPPE)의 허가나 학위 인가 단체의 인가를 취득하진 않은 상태이며 M.Div, M.A., D.Min. 등의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신학교 인가 기관인 ATS의 인가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학교는 특정 위치에 캠퍼스를 두지 않고 오렌지카운티, 리버사이드, 밸리의 지역교회에 교실을 빌려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시스템으로 학교 운영비를 절감하고 학생들이 저렴한 학비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한다. PCUSA 소속 신학교는 아니지만, 주로 이 교단 인물들이 재단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한인 중에는 평신도인 김영성 박사와 도은석 장로가 참여하고 있다. 김 박사는 1949년 이민 와 흉부외과 의사로 일하다 현재는 은퇴했으며 PCUSA 로스랜초스 노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김 박사는 이 학교에 관해 "다민족, 초교파 학교로서 교회와 지역 사회를 섬길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을 하는 학교"라고 소개했다. 도 장로는 파사데나장로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며 오픈뱅크 이사다. 현 총장은 존 딜리아(John D'Elia) 박사이며 이사장은 데이빗 탐린슨(David Tomlinson) 목사다.

김준형 기자

인랜드한인교역자협의회가 1일 인랜드교회에서 총회를 개최했다.

인랜드교역자협의회 정기총회…신임회장 강문수 목사 선출

인랜드 지역 교회 연합을 주도해 온 인랜드한인교역자협의회가 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에 강문수 목사(에덴선교교회 담임)를 선출했다. 단체의 명칭도 '인랜드교역자협의회'에서 '인랜드한인교역자협의회'로 바꿨다.

이날 총회에서는 각 교회에서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들을 초청해 2018년에 선교 컨퍼런스를 여는 것을 안건으로 채택했다. 이를 위해 이 협의회는 2017년부터 조직적으로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강문수 목사는 "부활절 연합예배와 성탄찬양제를 통해서 인랜드 지역의 연합과 영적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총회는 1부 예배와 2부 총회로 진행됐다. 1부 예배는 강문수 목사의 인도로 박신철 목사(인랜드교회 담임)의 기도, 손상헌 목사(두란노교회 담임)의 설교, 박충길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이인규 기자

둘로스선교교회 이전 감사예배

하나님의 은혜로 둘로스선교교회가 이전하여 하나님께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평소 둘로스교회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을 초청합니다.
꼭 오셔서 맘껏 축복해주세요!

▪일시 : 주후 2016년 12월 11일(주일) 오후 4시
▪장소 : 3119 W. 6th Street., LA, CA 90020 (6가와 Shatto Place)

祝 진유철 목사 초청 신년 축복 성회
주제 : 하나님이 하십니다! (창41:16)
일시 : 2017년 1월 5일(목)~8일(주일)
1월 5일(목)~7일(토) 저녁 7:30
1월 8일(주일) 오후 4시
장소 : 6가와 Shatto (3119 W. 6th Street., LA, CA 90020)

예배안내 황의정 PhD. 담임목사

장년부		
주일예배	1부 8:00	2부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월삭새벽기도회(매월 초하루)	오전 5:20	
교회학교		
유초등부	주일 11:00	금요일 7:30
중고등부	주일 11:00	금요일 7:30
청년대학부	주일 오후 1:30	

새 노래로 찬양하는 교회
둘로스선교교회
Worship Center : 3119 W. 6th Street., LA, CA 90020. / Office : 548 S. Kingsley Drive. #200, LA, CA 90020.
T. (213)365-2942 www.doulosla.com / T. (323)896-0675(담임목사)

목회(전도·선교·구제)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제50대 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 김영구 목사
수석부회장 샘 신 목사

“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133:1)
”

남가주한인목사회(이하 목사회)가 출발한지도 어언 반세기를 맞이했다. 더우기 2017년도 한해는 종교개혁 500주년과 맞물려 있어 그 의미하는 바가 더 크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모두는 "세상 패러다임"의 총체적 대변혁기 현실 속에서, 예측할 수 없는 혼돈과 암흑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을 대변할 뿐 아니라 이민한인사회를 대변하는 목사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한치 앞도 가늠하기 힘든 짙은 안개 속 같은 세상을 살아내며, 우연의 일치일까? 신임회장 김영구 목사도 수석부회장 샘 신 목사도 모두 50대 후반이다. 어떤 단체를 이끌어가기엔 더할나위없이 안정감있고 균형잡힌 연령대다.

나이 50이면 하늘의 뜻을 안다는 지천명(知天命)이라고 했던가? 하나님의 뜻을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이순(耳順) 문턱의 그들이 이끌어갈 제50대 남가주한인목사회에 거는 기대가 자못 크다.

이영인 기자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김영구 목사(나눔장로교회 담임)는 회장 취임 첫날부터 이미 바쁘다. "앉아서 기다리는 목사회"가 아닌 발품팔아 "찾아가는 목사회"을 통해 결코 쉽지 않은 이민교회 목회자들의 말못할 애환을 나누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연합과 화합의 실타래를 엮어가기 위해서다. 의욕과 열정만 앞서는 것이 아니다. 그는 벌써 믿음의 발을 내디디며 행동으로 실천해 가고 있다.

김 목사는 제50대 목사회가 능력껏 해낼 수 있는 모든 "섬김 사역"의 중심은 "목회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즉 목회의 기본인 전도와 선교, 그리고 구제 사역에 충실한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사역을 펼쳐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작은 교회 살리기

이곳 LA 지역 대부분의 한인이민교회는 열악하기 그지없다. 성도수도 50여 명 안팎인 경우가 절대다수다. 김 목사는 그들의 고충을 너무도 잘 안다. 김 목사가 시무하고 있는 교회도 그 처지가 이들과 별반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그중 가장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어린이 주일학교다. 그래서 비록 두 세 교회에 불과 할지라도 그들이 서로 연합하여 어린이 주일학교를 섬길 수 있도록 연합사역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또한 내년 한해 동안 적어도 40개의 작은 교회를 방문하여 예배를 섬길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목사회 임원을 중심으로 주일 오후나 평일 어느 한 날을 정하여 해당 교회를 방문,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상호 교제를 통해 연합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이다. 실제로 김 목사는 최근에 이미 이 "섬김 사역"을 실천했다. 비록 시무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연령대가 거의 80 언저리인 몇 안되는 작은 교회였지만 노년에도 불구하고 젊은세대 못지 않은 복음전파를 향한 열정을 보고 많은 도전을 받았다고 한다.

◈탈북민선교

김 목사는 이미 오래 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탈북민을 향한 긍휼함을 품고 탈북민 선교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므로 같은 동족일지라도 일반 한인교회에 제대로 적응하기 힘든 그들의 고충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이들을 위로하고 복음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내년 4월에는 망명한 탈북민들에게 한국 방문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오는 16일에 체결할 전라남도 완도군과의 업무협약(김정두 목사)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해마다 완도군에서 열리는 완도패스티벌에 초대돼 제주도까지 관광시켜준다는 계획이다.

또한 내년 7월 경에는 목사회 주최 "탈북민 선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대회는 시애틀 지역 고향선교회를 이끌고 있는 윤요한 목사와 함께 한다.

◈목사회 지정 선교지

비록 회장단은 바뀐다할지라도 목사회가 지속적으로 섬길 수 있는 선교지를 지정하여 교회도 세워주고 정기적인 단기 선교 등을 진행한다는 취지다. 선교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가까운 멕시코 지역을 염두해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선교분과도 별도 운영예정이다. 처음 시작은 두 달에 한 번정도 방문하여 점차적으로 선교지경을 넓혀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학사업

탈북민과 어려운 가정을 돕기 위한 장학사업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오는 11일에는 탈북민 8가정을 포함한 지정 장학금 수여식을 가진다.

회장 김영구 목사.

◈원로목회자 섬김 사역

원로목회자 섬김 사역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원로목사 초청 1일 관광을 준비중이다. 뿐만 아니라 목사회 주최 모든 행사에도 원로목회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케 하여 노년에 오히려 더 왕성한 사역 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래서 11일에 개최될 장학금 수여식에도 수여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한다.

◈몽족 선교

수석부회장인 샘 신 목사는 이미 몽족 선교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는 몽족 선교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잘 말해준다.

◈편찬사업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고 다음세대에게 우리 민족의 뿌리를 알리고자 편찬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별도의 편찬위원을 구성하여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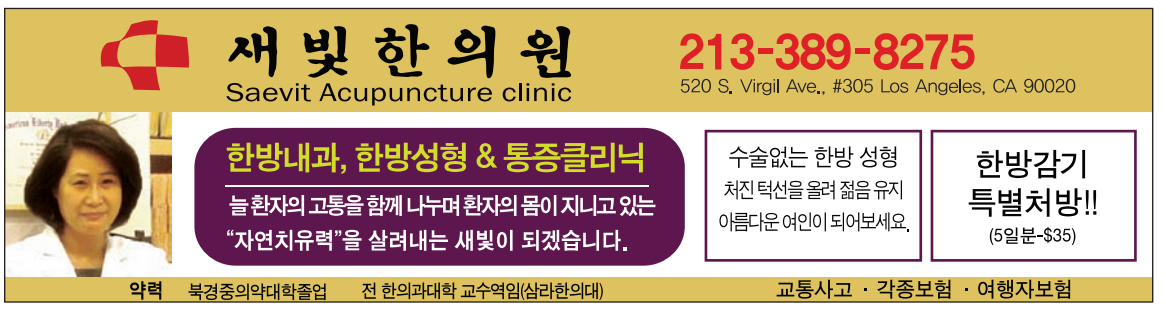
수석부회장 샘 신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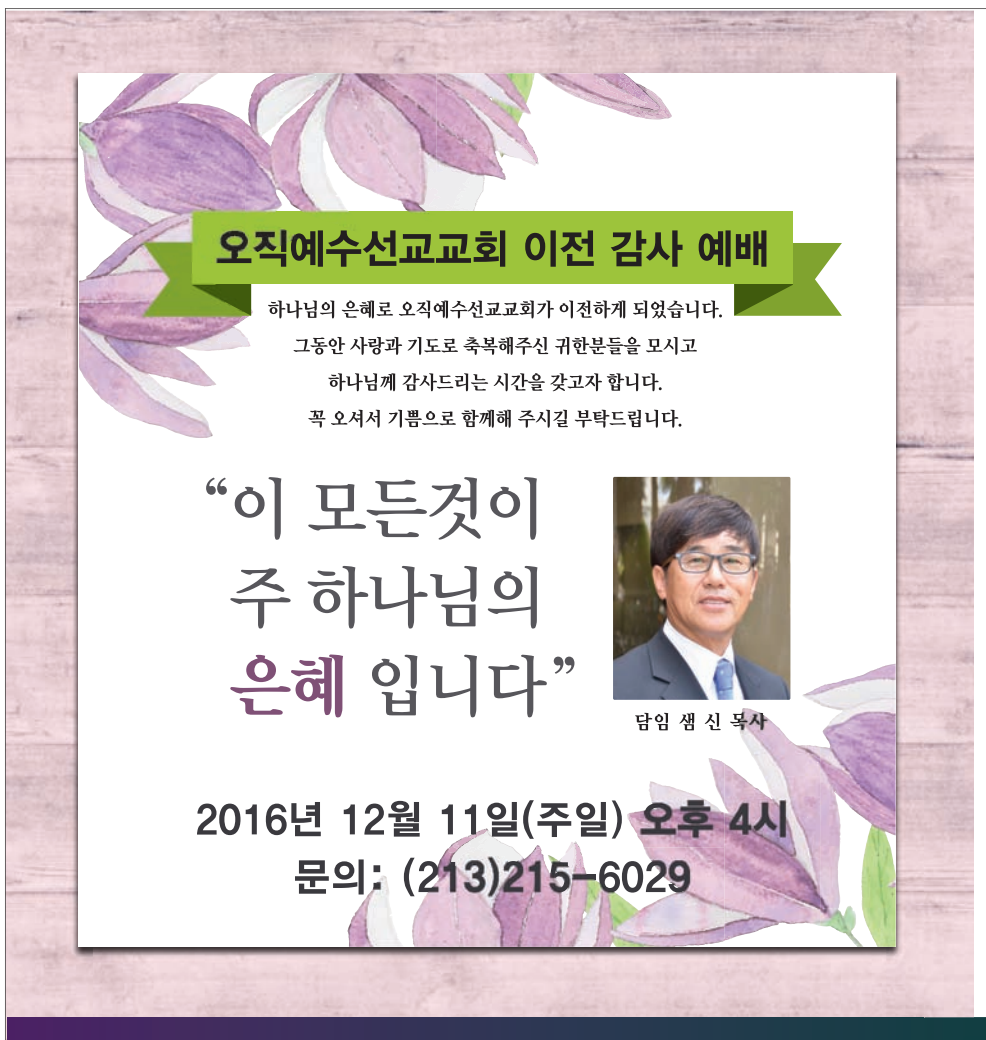
◈세대간 화합과 연합

제50대 회기는 목회자의 세대간 차이 극복이 절실함을 느껴 그 해법의 기초를 다지는 회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한다. 한인 최초 전직 경찰 출신이며 4.29폭동을 직접 경험한 1.5세 신 목사를 수석부회장으로 영입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1세와 1.5세대가 협력하여 2, 3세에 이르는 다음세대 목회자를 반듯하게 세워가는 바람직한 가교역할을 기대해 본다.

◈몽족은 원래 중국과 베트남, 라오스, 태국 국경의 산악지대에서 2,000년 이상 살아온 소수민족이다. 몽족은 베트남 전쟁 때 독립을 조건으로 미군편에서 협력했으나 1973년 미군이 패전과 함께 철수하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됐다. 그리고 그 일부가 미국으로 망명해 소수 커뮤니티를 이루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현재 미국에는 몽족이 약 26만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캘리포니아 북부 프레즈노 지역의 약 6만명을 포함 미네소타주의 세인트폴, 밀워키, 미니애폴리스 등지에 흩어져 살고 있다. 남가주한인목사회가 그들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몽족 선교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몽족 어린이들을 돕기위한 프레즈노 몽족 어린이 합창단 초청 찬양제가 열린다.
*일시: 12월 20일(주일) 오후 7시 *후원문의: 310-404-6219(김영구 목사)
*장소: 오직예수선교교회(3407 W. 6th St., #103, LA, CA 90020





*장소: 오직예수선교교회 (3407 W. 6th St. #103. Los Angeles, CA 90020)
*알림: 저녁 식사(5시30분) 제공 후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됩니다.

아틀란타교협 정기총회 개최 신임회장 송상철 목사 선출

신구임원 교체(왼쪽부터 김성구 신임부회장, 송상철 신임회장, 정윤영 회장, 류근준 총무, 이순희 회계, 김순영 평신도 부회장, 백성봉 서기)

아틀랜타한인교회협의회(이하 교협) 정기총회가 11월 29일 새한장로교회(담임 송상철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 26개 교회에서 26명이 참석한 총회에서는 신임회장으로 송상철 목사(새한장로교회 담임), 신임부회장으로 김성구 목사(빛과 소금교회 담임)가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송상철 신임회장은 "부족한 자에게 섬김의 기회를 주어 감사하다. 부족하지만 임기 동안 5가지를 힘쓰고자 한다.

첫째, 멤버십을 강화해 교협 회원인 것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임원진이 각 교단 목회자들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회원교회들도 방문해 격려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한다. 둘째, 목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모임을 상설화해 각자의 노하우를 나누고 서로 도울 수 있게 힘쓸 것이다. 셋째,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비전을 심어 줄 수 있는 집회를 여는 등 차세대를 키워내고자 한다. 넷째, 이단을 막아 바른 신앙을 수호해 내며, 다섯째, 협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일에 추진하고 한다"고 밝혔다.

총회에서는 신규회원 가입 건도 처리됐다. 예수섬김교회와 담임 전정희 목사는 교회와 목사 회원으로, 이미 가입된 한인장로교회는 백성식 담임목사가 목사 회원으로 가입됐다.

교협은 또 지난 8월부터 에덴스 UGA(University of Georgia)에서 한인 영어권 청년들을 위한 교회를 시작한 Campus Compass Mission Church(C2M) 대니 박, 캐더린 리-박 목사 부부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아틀란타 앤더슨 김 기자]

복음통일만이 하나님의 뜻 북한선교 박상원 목사 LA집회

성로원교회에서 개최된 집회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앞줄 왼쪽으로부터) 김성호 담임목사, 박상원 목사(기드온동족선교회 대표), 박형만 장로.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저자인 박상원 목사(기드온동족선교회 대표)가 엘에이를 찾았다.

박 목사는 2일 성로원교회(담임 김상호 목사)와 4일 나눔과섬김의 교회(담임 엘리야 김 목사)에서 열린 집회에서 "통일이 임박한 여러 가지 징후들을 보게 된다"면서" 반드시 복음통일만이 하나님의 뜻이요 소원"이라고 강조했다.

박 목사는 "지난 10여간 여러 우여곡절과 어려움 가운데 시애틀에서 한 집사의 후원을 통해서 〈굶주림 보다 더 큰 목마름〉이란 책을 쓰게 된 사연을 소개했다. 또 박 목사는 "이 책을 읽고 한국의 한 영화감독이 영화를 만들자고 먼저 연락도 오게 됐다"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복음 통일을 통해 선교한국의 궁극적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일하심을 본다"고 전했다.

박 목사는 "통일이 멀지 않았음을 본다.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은 한글판 으로 나온 지 불과 1년만인 2014년에 영문판 "The Righteous Outlaw"이 출판됐다. 2015년에는 속편인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를 출판해 현재 3만권 이상이 판매되었다. 후원 및 도서 구입문의는 전화 425-775-7477로 하면 된다. 이인규 기자

조동혁 박사 칼럼 12

조동혁 내과/신장내과

치매와 소외된 노인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이제 본격적인 연말 시즌이 시작됐다.

필자의 병원도 추수감사절의 연휴를 쉬고 더욱 바쁜 12월을 맞이하면서 추수감사절에 쓸쓸하게 홀로, 아니면 가족 둘만이 연휴를 보내신 노인분들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지난 연휴를 보내며 환자로부터 온 편지가 마음을 더욱 쓸쓸하게 만들어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의 남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는 죽어도 병원엔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제가 남편을 병원에 입원시키면 저를 죽이고 자신도 베란다에서 뛰어 내려 죽겠다고 합니다. 남편은 힘이 넘쳐서 제 고통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사를 하다보면, 가끔 환자들이나 보호자들로부터 비밀 편지를 받게 된다. 초기 치매환자는 의심이 많아지고 뇌의 전두엽 문제로 인하여 참을성이 없어지고, 화를 잘 내며 성격이 괴팍해지는 것을 보게된다. 그러다 보니 환자의 보호자는 진료시간에 환자가 화를 낼까봐 그 문제를 언급 할 수가 없고, 의심이 많아진 환자는 자신이 없는 사이에 보호자가 의사와 단독 상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비밀편지를 가끔 받게 된다.

위의 글을 보내온 환자부부는 70대 후반으로 자녀들은 모두 한국에서 살고 남편과 단둘이만 미국에 살고 있다. 수십년 간의 미국 이민생활 중 기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남편뿐이었건만, 이제는 남편의 정신과 감정이 돌아오는 약간의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이 남보다 더 무서운 공포, 또는 서러움의 시간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문제가 LA의 많은 노인층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노인부부들은 대부분 둘이서 살고 있으며, 자녀들이 있다하더라도 타지에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치매환자, 또는 그의 보호자가 도움을 받을 곳이 한정되어 있다.

필자는 치매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치매전문가는 아니다. 하지만 내과 전문의로서 적잖은 치매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그 이유는 치매에 쓰이는 약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내과에서 처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치매 치료는 전반적인 그 환자의 환경, 과거사와 가족상황 등도 알아야 한다. 환자의 뇌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그 환자의 다른 질병들도 같이 치료해야 한다. 그리고 그 환자의 가족과도 전반적으로 공동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다보니 많은 경우 그 환자의 주치의인 내과의사가 치매 치료를 담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어떤 때는 치매환자가 아니라 보호자의 정신건강에 대해 더 신경을 써야 할 때도 종종 발생한다.

지금 LA에는 노인인구가 적지않다. 대부분 70대 중반이 넘으며 사별하고 혼자 사는 노인도 적지 않다. 자녀들과의 왕래는 아주 드물어진 둘만의 부부들도 많다.

지난 주, 추수감사절 연휴 후 필자의 병원을 내원한 많은 노인환자분들이 쓸쓸한 추수감사절을 보냈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며 안타까운 마음에 아직도 가슴 한켠이 아리고 먹먹하다.

치매는 이렇게 고립된 노인 환자나 그 가족들을 사회적으로 더욱 고립시킨다. 다른 질병에 비해 가족들이 더 숨기고 싶어하는 한국 정서는 이런 환자들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치료를 지연시킨다.

혹시 이 글을 읽는 독자들 중 부모님을 한동안 뵙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잠깐만이라도 시간을 내 찾아뵙길 당부한다. 어린시절, 감기라도 걸려 고열에 시달리는 우리의 곁을 지키며 밤샘하셨던 분들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다. 그런 부모님들이 원치않는 치매에 걸려 쓸쓸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 이럴 때 잠시 찾아준 자녀의 손길은 다섯살 어린아이가 길을 잃고 울며 헤메다가 어머니의 손길을 잡은 것 만큼이나 반갑고 의지할 수 있는 구원의 손길이 될 것이다.

'이민목회와 선교의 큰 별' 이원상 목사 소천

12월 5일 오전 5시…항암치료 중 호흡곤란 겪어

故이원상 원로목사
와싱톤중앙장로교회

존경받는 목회자이자 선교 지도자인 이원상 목사(와싱톤중앙장로교회 원로·본지 편집고문)가 5일 오전 5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故 이원상 목사는 2015년 8월에 식도암 3기 판정을 받고 최근까지 항암치료 중, 지난 11월 28일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조지타운대학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결국 안타깝게 소천했다.

故 이 목사는 1977년부터 2003년까지 26년간 와싱톤중앙장로교회를 담임하며 미주를 대표하는 대형교회이자 건강한 교회로 성장시켰고 은퇴 후에도 시드선교회 국제대표로 섬기며 선교사를 파송, 후원하는 일과 선교를 위한 기도운동센터인 프레션(Prassion, www.prassion.org) 사역에 전력해 왔다.

그는 식도암 판정을 받은 직후에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함, 원망 없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셨다"고 말하며 사역을 멈추지 않았다.

故 이 목사는 1937년 만주에서 출생해 계명대 철학과, 경북대 대학원 철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 왔다. 달라스신학교에서 구약학으로 신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펜실베니아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공부하던 중 와싱톤중앙장로교회로 부임했다. 1977년부터 2003년까지 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시드선교회를 설립해 11 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했고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회장, 미국장로회(PCA) 한인교회협의회 의장, KWMC 공동의장, 미주 밀알선교단 이사장을 지냈다.

故 이원상 목사는 2002년 한인으로서는 최초로 미국 연방 하원의회에서 개회 기도를 인도하기도 했다. 그리고 은퇴한 후 72세에 영국 웨일스대학교에서 Ph.D. 학위를 받아 큰 화제가 됐었다.

김준형 기자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이 사 장 : 오병익 **발 행 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남가주 한인 목회의 미래를 조명해 보는 한인 목회자 모임

A Gathering of Korean/American pastors to reflect on The future of Korean/American ministry in Southern California

한인교회를 사랑하고 섬기시는 동역자 여러분,
변화가 일상이 된 삶 속에서 한인교회의 사역은 어떤 몫을 감당해야할까요?
그 미래의 밑그림을 어떻게 그려야할까요? 어떤 새로운 시도가 필요할까요?
New Theological Seminary of the West와 함께
그 대화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뜻 깊은 질문, 영감있는 반응, 통상을 뛰어넘는 제안들을 기대하며
영혼의 양식과 친교가 있는 미니 컨프런스에 초대합니다.

날짜
2016년 12월 12일 (월)
시간
오전 9시-3시 30분
장소
Westin Hotel(Plaza Room) 191 N Los Robles Ave., Pasadena, CA 91101
주최
The New Theological Seminary of the West
협찬
로스 란초스 노회, 샌 퍼난도 노회,
샌 가브리엘 노회 (미국 장로교)

프로그램
"21세기 한인 이민교회의 역할"
이승현 박사(현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총장)

세미나/토의
"신앙의 대물림을 위하여"
최훈진 목사(전 미국장로교 총회 Asian American Leadership Development)

"미래를 위한 교육"
강일준 목사(현 미국장로교 샌퍼난도 노회 노회장)

바울아 두려워 말라

사도행전 27:21-44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 재 효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로마에 갈 기회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전하는 일로 그 지역 유대인들에게 장사가 안된다고 영업 방해죄로 고발을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 죄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5:2~3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 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합니다(행 25:21). 그래서 바울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로마까지 호송되어져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7:9~11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영감(靈感)에 겨울을 지나고 떠나자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과 같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원들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고 떠나자고 했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제국시대로 백부장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길을 떠났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안개와 흑암속에 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산더미 같은 폭풍우에 밀려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들 열나흘 동안 잠도 못자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며 가슴을 졸이며 지내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 버리고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매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다고 했습니다(행 27:18~20).

이때 바울은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행27:21~26)"했습니다.

열나흘 쯤되는 밤에 아드리다 바다에서 이리저리 파도에 쫓겨 다니다가 밤중 쯤되어 사공들이 육지가 가까워지는 육감으로 물을 재어보기 위해 줄에 추를 단 자같은 것을 바다에 늘어뜨리는데 이십 길쯤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 길은 보통 180cm라고 합니다. 조금 더 있으니 열다섯 길이 되니 점점 육지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암초에 걸릴까하여 배 뒷전(고물)에다가 배를 움직이지 않게 닻 네 개를 내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사공들이 도망하기 위해 뱃머리(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루(구명정)를 바다에 내려놓습니다. 이것을 본 사도 바울은 이들이 여기 없으면 모두가 살아남을 수 없다고 소리치니 군사들이 거룻줄을 잘라서 그 배마저 바다에 빠뜨리고 맙니다.

날이 새어가니 바울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34절에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터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먹었다고 합니다.

이때 배에 있는 사람의 수는 전부 이백칠십육 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아직 배가 어느 곳엔가 정착하지 않은 상태였어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안심하고 모두 바울이 시키는 대로 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한배를 타고 험준한 죄악 세상의 파도를 헤치고 가고 있는 자들과 같습니다. 이 배에 목자를 세우시고 그 목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고 사도바울과 같은 목자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37절에 보면 이백칠십육 인이라고 숫자를 기록하신 이유는 많은 인원임을 밝히기 위함과 떡을 나누어 먹이기 위해 숫자파악이 필요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배 불리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했고 날이새어 가는데 어느 땅인지는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여 배를 그곳에 댈수 있을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고 바람에 밀려 해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양쪽에서 거친 파도가 밀어 붙이니까 배가 견딜 수 없이 깨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처럼 배에 탄 이백칠십육 명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하신 말씀들을 성취시키시면서 사람들이 사도바울이 하는 말을 100% 하나님이 하신 말로 믿고 따를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배가 섬이든 육지든 그저 올라갈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목적있는 계획이 이런 섭리를 위하여 나타났던 것입니다.

배가 파손되어가니 로마 군사들은 바울을 미리 죽이자고 합니다. 그것은 로마제국의 법에는 군인이 죄인을 호송하다 놓치면 그 호송병이 대신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동안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 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이나 배의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모든 사람이 다 육지에 올라 구원을 얻었다고 합니다(행 27:43~44).

그 배에 탄 선원들이나 장사꾼들, 군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양떼입니다. 그곳에 사도바울이라는 목자를 세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어긋남이 없기 때문에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전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배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목자인 바울의 말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었기에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백칠십육 명이 탈 수 있을만한 배는 아주 큰 것이었을 것입니다. 장사꾼들도 있어서 그곳에 있던 물건들의 값어치도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풍랑에 다 없어지더라도 중요했던 것은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까를 염려하지 말고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로 사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탄 배의 사람들이 멜리데라는 섬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몸이 약했습니다. 춥고 몸이 떨려 불을 지폈더니 독사가 나와 바울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뱀을 털어내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가 죽지 않자 그것을 지켜보던 그 섬 원주민들은 바울을 사람같이 생긴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원주민 추장집에 머물면서 극진한 대접을 받던 바울은 옛 추장의 병을 고쳐 살려주게되고 그 마을의 병자들은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병들을 고침받게 됩니다.

이렇듯 목회는 하나님이 해 나가십니다. 그렇게 석 달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멜리데 섬은 모두 복음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멜리데부터 복음화시키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로마로 들어가는 배가 오고 로마로 가기 위한 식량을 섬 주민들이 (병고침 받고 영혼이 구원얻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해서) 넉넉히 채워 실었습니다. 이처럼 물질은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시는 곳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리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붙여준 백성은 하나님이 쓰실 계획을 다 이루시기까지 함께 살리실 줄 믿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배에 사도바울을 통해서 다 살리실 계획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고생과 힘겨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포함되어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샌퍼난도 밸리 한인교회 교역자협의회

밸리 지역 성탄절 축하 연합 찬양축제 및 장학생 선발

샌퍼난도밸리한인교회교역자협의회에서 알려드립니다.
2016년 12월 11일(주) 성탄절 연합 찬양축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쁨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밸리 지역에 거주하는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성탄절 축하 연합 찬양축제

일시 : 2016년 12월 11일(주) 오후 5시
장소 : 웨스트힐 장로교회 (김인식 목사 시무)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장학금신청요령

- 1) **선발대상** : 대학 및 대학원생/신학대학원 재학생
- 2) **자격조건** : 샌퍼난도 밸리 지역에 거주하는 자나 샌퍼난도 밸리 지역에 위치한 한인교회에 출석하는 자로써 생활 형편상 학자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 3) **제출서류** : (1) 출석교회 담임목사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1통(대학 1학년일 경우 12학년 성적표 제출)
  (3) 자기소개서 1통
  (4) 비기독교인 신청자는 밸리거주 증명 (부모님 주소도 가능)과 (2)와 (3) 그리고 교수 추천서 1통
- 4) **마 감** : 2016년 11월 26일(토)까지 도착
- 5) **제 출 처** : 나성평화교회(Korean Peace Church of LA)
  (Attn: Pastor O. S. Seo) 14683 Fox St., Mission Hills, CA 91345

장학금 수여식도 함께 거행합니다.

공지사항 본 협의회 장학생 선발 사업 취지에 동참하여 장학금을 제공 하시는 분들과 교회는 개인(또는 교회나 단체) 이름으로 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Pay To The Order 는 K.M.A입니다.)

밸리교역자협의회 정기총회 및 탁구대회

일시 : 2016년 12월 13일(화) 오전 10:30
장소 : 에브리데이 교회 (최홍주 목사 시무)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818)832-6628

샌퍼난도밸리한인교회교역자협의회

회장 : 김영일 목사 서기 : 김선일 목사

The Korean Minister Association in S. F. Valley

담임목사 청빙

1974년 11월 24일 미조리 세인트루이스에 설립 된 본 교회는 성도들이 형제처럼 서로 의지하며 주님의 평화가 늘 함께 하기를 노력하는 신앙 공동체로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삶을 닮아 가기를 소망하는 그 무엇으로도 포장되지 않는 생명의 말씀이 성도의 삶에 역사하는 교회, 성령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꿈꾸는 참 목회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원자격

1. PCA 교단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2. 신학대학원(M. Div)를 졸업하고, 3년 이상 목회 경력이 (부목사 포함) 있으신 분으로 55세 이하
3.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4. 한국어와 영어 구사가 가능 하신 분

제출서류

1. 이력서 1부
2. 졸업증명서 및 안수 증명서 각 1부
3. 자기소개서(성장배경, 소명, 목회경험, 가족소개) 1부
4. 목회 계획서 1부
5. 최근 6개월내 설교 2편(DVD, 영상 File)

서류제출 마감일 : 2017년 1월 15일(주) 소인 까지

제출처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세인트루이스 한인제일장로교회)
(Attn : 청빙위원회) 3350 Adie Rd. St., Ann, MO 63074
E-mail : stlfirstch@gmail.com

기타사항

1. 제출 서류는 상기 주소로 일반 메일과 이메일로만 접수 합니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분은 개별 통지 합니다.

세인트루이스 제일 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http://www.stlfkpc.org)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픽/업/가/능

P.G.A Player Tour	(12~14살 1~2명 모집)
P.G.A Player Tour	(8~11살 1~2명 모집)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문의 : 최 제이콥 프로 T(310) 598-0746

Golf Studio 각종 골프클럽 최저가 판매
(Olympic 갤러리아몰 322호)

LA 예닮교회 부설 다중지능 교육원

성격과 적성에 맞는 나 자신의 미래 직업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지문(Finger Print)은 태아의 뇌 발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형성됩니다.
지문(Finger Print)을 통해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개인의 진로(전공)와 직업, 적성을 8가지의 다중지능(Multiple Intellgence)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집단상담(Group Counseling) 개인상담(Personal Counseling) 진로 직업적성검사(Mi test) 문의 (323) 559-0070 상담학 박사과정

LA예닮교회 1134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목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ea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
LA 예닮교회 담임목사

사역자 청빙

휴스턴한인중앙장로교회에서는
함께 동역할 신실하신 사역자를 청빙합니다.

구 분
파트 혹은 풀타임 사역자

부 서
교육부와 교구
(영유아부/중등부/주중학교/교구)

자 격
정규 신학교 졸업 전도사 목사

이력서 보내실 곳
jhoyee@hotmail.com
T.(281)752-0700 Ext.2

저희 교회에 대한 정보는
www.kcpch.org

휴스턴한인중앙장로교회

부족함이 없는 교회

김 성 민 목사
팰리세이드교회

수년 전 충청도에 있는 한 시골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멀리서만 돕던 목사님과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였다.

그 교회는 42년 된 교회인데 제적과 출석이 41명이었다. 목사님은 그 당시 46세이셨고 담임하신 지 11년이 되어갔다.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 교회규모는 비록 작은 시골 교회였으나 무언가 꽉찬 듯한 느낌의 깊은 인상을 받았다.

교회 입구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했고, 본당 뒤편에는 성미를 모으는 독이 있었으며, 앞에는 적은 숫자가 앉을 수 있는 성가대 자리가 있었고, 앞면에는 표어가 붙어 있었다.

성도들은 모두 70세 이상으로 보였다. 41명의 전체 교인들이 외부 강사가 왔다고 기뻐하며 주중인데도 100% 다 모였다. 설교 기회 주심에 감사하여 한껏 준비하고 갔지만 그분들을 만나는 순간, 준비해 간 설교를 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대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전부 나누기로 했다.

예배를 마치고 그분들과 함께 악수를 나누고, 얼싸안으며 사랑을 나누는 동안 그 교회는 모든 것이 준비된 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언제 기울어질지 모르는 작은 건물이었지만 예배당도 있고, 사랑으로 하나된 성도들도 있으며, 다 찌그러진 봉고차도 있고, 성실한 목사와 사모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었다.

그곳에서 이틀간 머무는 동안, 얼마 안되는 돈을 보내고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으로 보러 왔다는 내 스스로가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했는지 모른다.

이 작은 시골 교회 담임목사님은 내게 언덕 저편에 높이 솟아있는 십자가를 가리켜 보였다.

그 교회에는 젊은이들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더 잘 모이기 위해 큰 버스로 시골 구석구석에 있는 사람들을 픽업하면서 교회 출석을 돕는 사역도 하는 교회라고 했다.

그러한 교회에 비하면 내가 방문한 이 교회는 너무나도 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교회였다.

하지만 이 시골 교회는 세상 그 어느 교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으며, 돌봄이 있고, 멀리 선교하지는 못하지만 교회 옆 밭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호미질을 하는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교회였다.

나는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굳혔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결과가 아니라 행복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80세가 주류를 이루는 교회이긴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교회라면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역사하실 젊은 교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모든 것이 잘 구비된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이다.

하나님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에베소서 4:4)라고 말씀 하신다.

우리 교회가 꽉찬 교회가 될 수 있기 위해 힘을 다하여 모이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전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나의 교회를 돌아보면 꽉찬 정도가 아니라 차고 넘치는 수많은 행복의 이유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행복하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하기에 행복하며,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니 행복한 그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노출(露出)의 용기

김 영 길 목사
감사한인교회

선생님의 질문에 아이들이 쉽게 대답하지 않는다. 자기의 대답이 틀리면 부끄럽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다. 그래서 입을 굳게 다물고 서로 눈치만 본다. 가만히 있으면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요나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주전 793~753년)가 치리하던 시절에 살았다.

어느 날 그는 북쪽으로 550여 마일 떨어진 앗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보내심을 받았다. 요나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왜요?"하고 물으면서 딴죽을 건 요나와 하나님의 씨름 이야기이다.

요나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못마땅해서 슬그머니 다시스(스페인)로 도망을 갔다.

그러나 얼마 후 선원들은 성난 바다에 그를 집어 던졌고, 그를 꿀꺽 삼킨 고기는 사흘 후 니느웨의 해변에 산채로 토해냈다. 할 수 없이 니느웨에 들어간 요나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다.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정말로 무너지기를 바랬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귓등으로 흘려듣기를 바랬다. 아무도 회개하지 않고 차라리 자기를 박대하며 쫓아내기를 바랬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수시로 침략하고 약탈해가던 앗수르가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 아래에서 흔적도 없이 망하기를 간절히 바랬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금식을 선포하며,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했다.

왕도 보좌에서 일어나 굵은 베옷을 입고 흙 먼지 위에 앉아 회개했다. 짐승들까지 굶겨가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하나님께 진노를 거두어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정된 재앙을 전격적으로 취소하셨다.

이것은 결코 요나가 원했던 상황이 아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 격렬하게 항의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대답하셨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가만히 입 다물고 앉아 있기 보다는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 생각을 있는 그대로 노출하는 편이 훨씬 더 유익하다. 그렇게 생각을 노출하면 적어도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수가 있다. 절대로 손해 볼 일이 아니다.

아이들은 "왜요?"를 물으면서 성장한다. 말씀양육을 통해 마음껏 하나님께 "왜요?"를 물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노출시키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정운길 칼럼(7)

잘 웃는 사람되어 건강하게 사세요!

정 운 길 선교사
실버선교회 국제대표

잘 웃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웃음으로 병을 이겨낸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잘 웃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웃음이 몸에 밴 사람들을 자주 만나서 나도 잘 웃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미인대칭비비불"을 실천해 보자.

(미소)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마법)/(인사)는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한다.(친해짐)/(대화)는 서로의 이해를 높여준다.(풀어가기)/(칭찬)은 용기를 심어준다.(서로 북돋아줌)/(비난)하기보다는 격려를(용기를 줌)/(비판)하기보다는 협조를(제안)/(불평)하기보다는 칭찬을 하자.(지혜를 모아 해결)

불평은 불행을 끌고 다닌다. 표정이 밝고 잘 웃는 사람이 병도 잘 낫고 암도 치료한다. 쉽고 자연스럽게 웃으려면 나는 어린아이라고 생각해보라. '나는 3살짜리 아기다!' 라고 생각하면 잘 웃을 수 있다. 3살짜리 아기는 형식도, 체면도, 선입견도, 근심 걱정(우유값 걱정)도 없이, 경쟁하거나 더 가지려 하지 않고 그냥, 마냥, 항상, 기쁘고 즐겁다.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활짝 웃어보자. 웃지 못할 상황에서도 웃을 때 우리 뇌는 웃고 있다고 인식해서 우리 몸의 면역을 활성화시켜서 건강한 몸을 유지시켜준다.

웃음에는 3대 원칙이 있는데 크게, 함께, 오래이다. 10초 이상 온몸으로 웃을 때 뇌하수체가 나오고 기분이 좋아지고 혈액이 잘 흐르게 된다.

잘 웃을 수 있는 일과(日課) 중 박장대소(拍掌大笑) 10계명(誡命)을 소개한다.

1계명: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도 '상쾌하게 하하 하하하!'/2계명: 세수할 때 거울을 보며 '예쁘게 하하 하하하!'/3계명: 아침 식사할 때 한 그릇 '거뜬하게 하하 하하하!'/4계명: 집을 나설 때 '활기차게 하하 하하하!'/5계명: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과 하이파이브 하면서 '신나게 하하 하하하!'/6계명: 점심 식사할 때 '맛있게 하하 하하하!'/7계명: 일하면서 책상을 치며 박장대소 '튼튼하게 하하 하하하!'/8계명: 퇴근할 때 박장대소하며 '보람차게 하하 하하하!'/9계명: 저녁 운동을 시작하며 요절복통 하며 '건강하게 하하 하하하!'/10계명: 잠자기 전에 '감사하게 하하 하하하!'

우리는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지 못할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기에 우리가 기뻐하면서 웃을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행사기간 12.01-12.14.16

Wholesale Restaurant Supply

Central Ave

Cash & Carry

GRAND OPENING

400불 이상 구매시 타올 디스펜서 증정

200불 이상 구매시 엘리자베스 아덴 뷰티 세트 증정

T. 213-251-1070

3525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구, 아씨수퍼 지하)

[OPEN HOURS] M-F 6:30 am - 6:00 pm / Sun 8:00 am - 4:00 pm

그로서리

오픈특가

이천 햅쌀 RHEE CHUN RICE 40LB 14.99

CJ 소고기 다시다 CJ BEEF SOUP STOCK 10X2.2LBS 77.99	CJ 부침/튀김가루 PANCAKE MIX/FRYING MIX 10X2.2LBS 14.99	아씨 순창고추장 ASSI RED PEPPER PASTE 37LBS 37.99	아씨 순창된장 ASSI SOY BEAN PASTE 37LBS 27.99	이금기 간장 SOY SAUCE/LEE KUM KEE 5GAL 16.99	오뚜기 라면사리 OTTOGI RAMYONSARI 48x3.88oz 14.99	왕 진당면 STARCH NOODLE/WANG 6X2.27KG 29.99	기꼬만 혼쯔유 HONTSUYU/KIKKOMAN 6X1.8L 49.99	
판다 굴소스 OYSTER SAUCE/PANDA 6X5LB 32.99	혼다시 HONDASHI/AJINOMOTO 10X2.2LBS 119.99	우나기소스 UNAGI SAUCE/KIKKOMAN 6X5LBS 49.99	아끼꼬 참기름 SEASAME OIL/AKIKO 4X1GAL 29.99	백설 요리당 COOKING SYRUP/BEKSUL 6X2.45KG 27.99	오뚜기 돈까스소스 PORK CUTLE SAUCE 6X2.1KG 34.99	아씨 꽃소금 ASSI SEA SALT 20LBS 5.99	C&H 설탕 C&H SUGAR 50LBS 23.99	
보리차 ROASTED BARLEY 44LBS 67.99	아씨 멸치젓국 ASSI FISH SAUCE 3X1.18GAL 17.99	고춧가루/김치용&조미용 ASSI HOT PEPPER POWDER 8X5LBS 84.99	곰표 밀가루 WEAT FLOUR 6x2.5kg 17.99	마요네즈 MAYONNAISE/ANTONIO 4X1GAL 21.99	미츠칸 스시식초 SUSHI VINEGAR/MIZKAN 5.28GAL 34.99	식초 DISTILLED WHITE VINEGAR 4X1GAL 6.99	기꼬만 멤미소스 MEMMI SAUCE/KIKKOMAN 6X64OZ 49.99	레몬쥬스 LEMON JUICE 4X1GAL 24.99	폰즈소스/레몬&라임 PONZU DRESSING&SAUCE 6X1.89L 39.99
기꼬만 테리야끼소스 TERIYAKI SAUCE/KIKKOMAN 4x1GAL 49.99	샐러드드레싱/머스타드&참깨 MUSTARD&SOY SAUCE DRESSING 6X32OZ 39.99	CQ 콩오일 SOYBEAN OIL/CQ 35LBS 18.50	S&B 골든커리 GOLDEN CURRY/4KINDS 12X8.4OZ 24.99	헌트 케찹 HUNT'S KETCHUP 6X7LB 21.99	옥수수캔 WHOLE KERNEL CORN 6X6LBS 21.99	롤리팝 캔디 ASSORTED ROUND LOLLIPOPS 25LBS 34.99	콜라/스프라이트 캔 COKE/DIET COKE/SPRITE 35CANS 10.99	알루미늄 호일 ALUMINUM FOILSHEETS 9X10 3/4in 500 6.99	랩/12in ALL PURPOSE CLING FILM 12in x 2000ft 10.99

컨테이너/세제

오픈특가

컨테이너 MEDIUM HINGED LID CONTAINERS 2x100ct 17.99

국물 투고용기 PLASTIC QUART CONTAINERS 240 sets 39.99	12oz 컨테이너 12oz CONTAINERS 500 19.99	5oz 컨테이너 5oz CONTAINERS 1000 25.99	컨테이너 CONTAINERS 200 SETS 64.99	샌드위치 컨테이너 CONTAINERS 4X125CT 21.99	6oz 음료용 컵 6OZ FORM CUPS 1000PCS 14.99	폼접시 9in/1&3칸 FOAM PLASTIC DINNERWARE 500 14.99	점보블랙빨대 JUMBO BLACK STRAW 10BOX 250PCS/BOX 9.99	
대나무 젓가락 BAMBOO CHOPSTICKS 2000EA 21.99	플라스틱 스푼/포크 FLASTIC SPOONS/FORKS 10PK 100pcs/PK 14.99	디너냅킨/1-PLY 1-PLY DINNER NAPKIN 34.99	멀티폴드 타올 MULTIFOLD TOWL 4000CT 15.99	음료용냅킨/1PLY BEVERAGE NAPKIN 8X500CT 9.99	페이퍼롤타올 PAPER ROLL TOWEL 6ROLLS 19.99	다목적 페이퍼타올 ALL PURPOSE PAPERTOWEL 2 PLY 30 ROLLS 21.99	화장실용 휴지 2-PLY BATHROOM TISSUE 96 ROLLS 39.99	
핸드솝 HANDSOAP/CHEMCRAFT 4X1GAL 13.99	수퍼폴리 장갑S/M/L SUPER PLOY GLOVES 10X100 12.99	철수세미 STAINLESS STEEL SCRUBBER 6BOX 12PCS/BOX 20.99	11X14 롤백 PLASTIC PRODUCE BAGS 4 ROLLS 14.99	땡큐백 THANK YOU BAGS 12X7X22in 9.99	쓰레기봉투 33G BLACK TRASH BAG 33 GAL 100CT 17.99	쓰레기봉투 55G BLACK TRASH BAG 55 GAL 100CT 19.99	물비누 그린&레몬 DISH WASH/LEMON&GREEN 4X1GAL 13.99	오븐&그릴 클리너 OVEN & GRILL CLEANER 4X1GAL 16.50	블리치 BLEACH/PURE BRIGHT 4X1GAL 9.99
그릴 크리너 GRILL-BRICK/GRILL CLEANER 4X1GAL 16.50	변기커버 TOILET SEAT COVER 250PC 20PK 24.99	윈덱스 WINDEX 4X3.78L 29.99	포스 롤 DATA TERMINAL ROLLS 50ROLLS 44.99	게스트체크 GUEST GHECKS 3.50X6.75in 50BOOKS 29.99					

냉장/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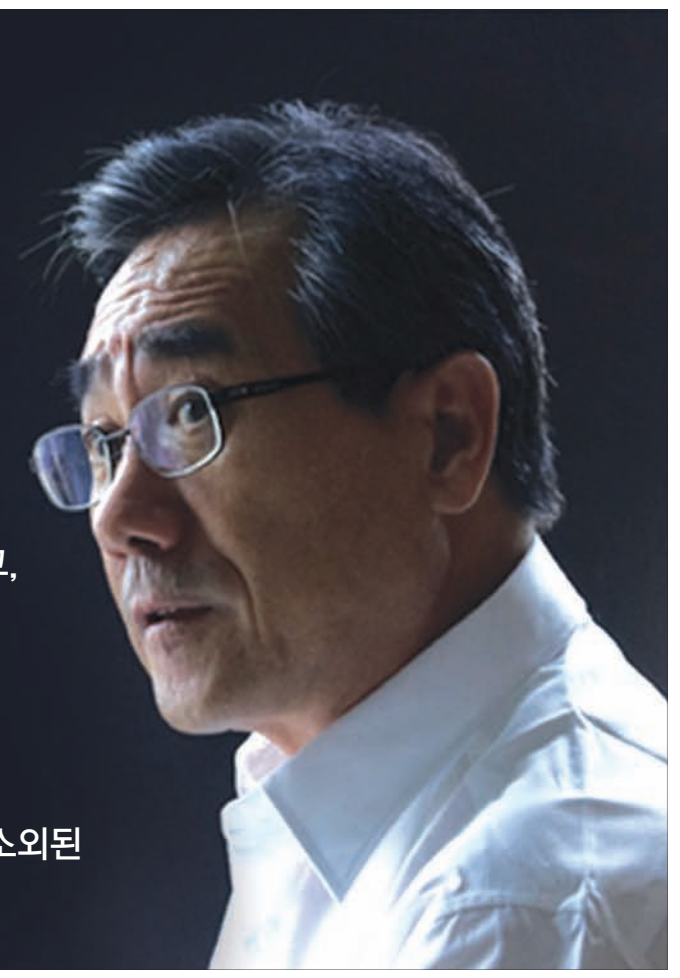
강원도 동광/평창 고랭지 포기김치 KIMCHI/WHOLE 10KG 35.00	단무지 PICKLED RADISH 15X2.2LB 27.99	염장미역 SALTED SEAWEED/ASSI 33LB 31.99						
아씨 천사채 SEAWEED NOODLES 10X2.2LB 24.99	하나 사누끼우동 FROZEN SANUKI UDON 8X2.75LB 16.99	칼국수&짜장국수 FRESH NOODLES 10X2.2LB 29.99	맛사랑 사각어묵 FISH CAKE 20LB 29.99	신당동 떡볶이떡 RICE CAKE/ASSI 20X2LB 41.99	아씨 해물모듬 MIXED SEAFOOD/ASSI 15X2LB 117.99	꽁치 MACKEREL PIKE 10kg 19.99	깐가자미 PEELED SOLE 10LB 25.99	새우젓 SALTED SHRIMP 66LB 79.99	몸에 좋은 낙지 FROZEN SMALL OCTOPUS/ASSI 20X1.5LB 89.99

정육

돼지 불고기 PORK BUTTS SLICED 2.19LB	흑돼지 삼겹살 PORK BELLY SKLS JP-SP 2.69LB	소 불고기 BEEF CLOD XT SLICED/2.5mm 2.99LB	소곱창 BEEF SMALL INTESTINES 1.49LB	막창/대창 BEEF ABOMASUM SWIFT 2.99LB	도가니 BEEF KNEE BONE 0.99LB	사골 BEEF LEG BONE 0.99LB	닭 다리살 CHICKEN LEG MEAT 0.99LB	

일부 세일품목에 한하여 수량제한이 있으며 조기품절 될 수 있습니다. 광고제작상의 오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외된 이웃과 민족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목회자



오공익 목사는

제주 남원 출생으로 서울장신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신대원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영락교회와 인천제삼교회를 거쳐 1987년 중문교회에 부임하였다. 제주를 사랑하고 제주를 위해 헌신하는 목회자로서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받은 준비된 목회자일뿐 아니라 각종 세미나 강사로 열정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특별히 교회 내 중보기도사역을 활성화하여 제주도 지역 뿐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으며, 이 땅 위에 고통받는 가족과 소외된 이웃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않는 목회자이길 소원하고 있다.

제주 중문교회

오공익 담임목사

제주중문교회는 1914년에 세워진 교회로 제주 지역에서는 잘 알려진 교회다. 본인은 시골 교회라며 겸손해 하지만 성도 900여 명이 출석하는 꽤 규모있는 교회다.

오공익 목사의 교회론. 그는 성경에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찾기 시작했고 2가지 결론을 얻었다. 그것은 '고백의 교회'와 '성령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다.

제주중문교회 오공익 담임목사가 남가주를 방문했다. 이 기간에 그는 쌍둥이 형 오병익 목사가 시무하는 남가주벧엘교회 심령부흥성회와 주일예배에서 설교했다.

1914년 세워진 중문교회는 이 지역에서 이름이 잘 알려진 교회다. 자칭 시골 교회라고 하지만 성도 900여 명이 출석하는 상당한 규모의 교회다. 제주 출신인 오공익 목사는 서울장신대, 장로회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 영락교회와 인천 제삼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다 이 교회에 부임해 30년째 목회하고 있다. 제주기독교교단협의회 회장, 서울장신대 겸임교수를 역임했고 제주열방대학 이사, 제주소아암재단 이사, 서귀포경찰서 경목실장, 제주성시화운동본부 대표 등을 맡고 있다.

제주는 복음화율이 지금도 7%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오 목사가 처음 제주에 왔을 때는 더욱 심각했다. 교회의 분쟁이 너무 많고 목회자들도 오래 버티지 못했다. 중문교회 역시 그런 상황에서 '제주 출신 목사'이면서 '육지에서 목회를 배운 사람'을 찾다가 오 목사를 찾아냈다. 오 목사는 "부임 후 매일 살려달라며 하나님께 매달렸고 하나님께서 절 불쌍히 보셔서 교회가 안정되고 회복되게 해 주셨다"고 회고했다.

그렇게 7년간 목회를 하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해치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봤다고 한다. 예배에 기쁨이 없고 그저 그냥 그렇게 때 되면 예배드리는 것이었다. 이 문제를 놓고 씨름하다 전환기를 맞이하게 됐다. 故 하용조 목사의 두란노목회연구원이 제주에 세워지면서 오 목사도 참여하게 됐다. 초교파적으로 모인 제주 목회자 20여 명이 한 달에 두 번씩 서울에서, 나머지 두 번은 제주에서 목회 스터디를 했다. 故 하 목사와의 개인적인 만남도 오 목사의 목회 철학을 세우는 데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그때부터 오공익 목사의 교회론이 쓰여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성경에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찾기 시작했고 2가지 결론을 얻었다.

"성경 속의 교회는 첫째, 고백의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구원의 감격을 갖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런 성도가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둘째, 성령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성령을 경험하기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제자의 삶을 살지 못했지만, 비로소 성령을 받고서야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변화됐다."

이런 깨달음 후 그는 예배의 최고 목적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데에 두었다. 주보에 있는 순서를 따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때마다 해치우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성도들에게 "내 예배와 찬송,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에도 초점을 맞추었다. 뜨거운 찬양과 강력한 설교가 중심이 된 예배였다.

그러자 예배가 살아났다. 성도들이 술과 담배를 끊고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다. 물론 오랜 역사를 지닌 교회인 만큼 변화를 싫어하는 교인들의 반발도 있었다. 한 장로가 오 목사의 사택까지 찾아와서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고 이 충격으로 사춘기 아들이 가출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오늘에 이르렀다. 최근에는 제주를 방문한 한 관광객이 예배 후에 "말씀이 살아있고 찬송이 살아있는 모습에 제주의 희망을 보았다"며 중문교회에 1억 원을 헌금한 사건도 있었다.

예배 회복 이후 오 목사가 집중한 분야는 중보기도다. 중문교회는 강력한 중보기도로 유명하다. 성도들이 1주일에 1시간씩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률이 93%나 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선교사를 위해, 담임목사를 위해, 성도들의 긴급한 문제를 위해 등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적힌 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를 들고 들어가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4개월마다 기도 응답 상황을 통계로 낸 후, 성도들이 기도 응답을 간증하며 축제의 예배를 드린다. 이 행사 덕분에 성도들은 지치지 않고 중보기도 사역에 새 힘을 얻는다고 한다.

끝으로 오 목사는 "영적 거장들은 영혼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린다"면서 "저도 부족하지만,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일에 가장 큰 비전을 두고 있다"면서 "진정한 리더십은 믿음을 주는 것인데 목회자가 사심 없이 영혼을 사랑하고 있음을 성도들이 확인하면 반드시 그 리더를 따라간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는 아직도 토속 신앙이 지배적인 불신의 땅이다. 그래서 저는 제주가 땅끝이라 믿고 한 번도 다른 곳을 곁눈질하지 않으며 열심히 목회했다. 또 이 목회 비전으로 성도들과 함께 또 다른 땅끝을 향해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인터뷰를 맺었다.

김준형 기자

최근 제주에서 열린 CBMC 대회에서 설교하는 오공익 목사. ⓒ제주중문교회

제126회 대한성서공회 정기이사회 전경. ⓒ대한성서공회 재공

116국가·203언어·6백만부 해외성서 보급

대한성서교회…제126회 정기이사회에서 밝혀

[1면으로부터 계속]또 "첫 해에는 18개 성서공회에 153,600부를 기증하는 규모로 시작하여, 금년에는 52개 성서공회에 538,442부로 기증 규모가 확대되었다. 지난 9년 동안 누계하여 보면, 본 공회는 100개 성서공회에 총 2,187,650부의 성서를 제작하여 무상으로 기증했다"고 전했다.

특히 "후원회원의 확대와 교회 및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2020년에는 연간 50억 원을 목표로 모금 사업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금년에는 아프리카 지역의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부룬디, 모잠비크,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등 18개, 중남미의 수리남, 아이티, 에콰도르, 온두라스, 칠레, 쿠바, 파라과이 등 17개, 유럽 중동 지역의 그리스, 러시아, 루마니아, 터키, 폴란드 등 10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라오스, 방글라데시, 파푸아뉴기니 등 7개국으로 성서가 지원됐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권 사장은 "2012년 12월 '새한글 성경전서'(가칭)의 번역을 시작한 이래 금년 10월 말 기준으로 기초번역이 완료되었으며, 55%의 번역 검토와 17%의 문장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젊은이들이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풍부한 해설과 그림, 사진, 영상 등의 자료를 함께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1부 기도회에서는 우종칠 목사(기독교대한감리회, 진남제일교회 담임)가"형통할 때 기뻐하고 곤고할 때 생각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으며, 2부 회무처리에서는 신 이사 중 교단대표로 신상현 목사(예장고신)가 소개됐다.

안건으로는 구세군대한본영의 교단대표로 장만희 서기장관이 박종덕 이사 후임으로 보선되었다.

이어 교단대표로 권희연 주교(대한성공회), 김상현 목사(예장합동), 이영훈 목사(기하성), 양병희 목사(예장백석)가 선임되었으며, 찬성회원 대표로 김순권 목사, 김동권 목사, 문희수 목사, 이선균 목사, 김광년 장로가 선임됐다. 또한 감사에는 송영훈 장로가 선임됐다.

홍은혜 기자

KWMA 2016한국선교지도자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선교 패러다임 변화와 선교유업의 계승

KWMA '2016한국선교지도자포럼' 열려

KWMA(The Korea World Mission Association, 한국세계선교협회) 주최 "한국선교지도자포럼"이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한국 용인에 위치한 온누리교회의 "Acts 29 Vision Village"에서 200여 명의 선교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교 패러다임 변화와 선교유업의 계승"이란 주제로 열렸다.

특별히, 11월 24일 저녁에는 '선교유업의 계승' 시간에, 3개의 교회(기관)와 그 지도자를 선정, 한국의 세계선교에 크게 공헌한 점을 인정하여 KWMA 공로기념패를 전달하는 순서가 있었다.

수상자로는 바울선교회의 이동휘 목사(전주 안디옥교회 원로목사), GMI(은혜국제사역)의 김광신 목사 (미국 은혜한인교회 원로목사), 온누리교회의 고 하용조 목사가 각각 공로기념패를 수여받았다. GMI는 사무총장인 양태철 목사(예장보수합동국제총회 선교부장)가 김광신 원로목사를 대신해 받았다.

한편 GMI(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는 현재 74개국에 520명의 선교사(파송 60%)가 사역 중에 있다. GMI는 상기 국제총회 소속의 초교파 선교회이며, 65개 소속교회가 함께 연합으로 선교하고 있는 국제적 선교회이다.

[양태철 목사(목회선교학 박사, 시인]

법원, 동성결혼 불허용 재확인

김조광수-김승환 씨 행정처분 불복 항고심에서 소송 기각

김조광수-김승환 씨.

동성 간 혼인신고서 불수리에 불복해 제기된 소송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5부(김양섭 부장판사)는 동성(同性)인 영화감독 김조광수(51) 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2) 씨가 제출한 혼인신고서를 서대문구가 불수리 처분한 것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한 항고를 6일 기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현행법 해석과 재해석 가능성, 항고인들과 피신청인의 주장, 제출 자료들을 면밀히 살펴봐도 1심 결정은 정당하고, 달리 1심 결정이 '법령을 위반한 재판'이라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조광수와 김승환 씨는 지난 2013년 9월 서울 청계천 인근에서 '야외 결혼식 퍼포먼스'를 진행한 후 그해 12월 소재지인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서대문구는 "동성 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어 무효"라며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이에 "민법 어디에도 동성 간 혼인 금지 조항이 없고, 혼인의 자유와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1항에 따라 혼인에 대한 민법 규정을 해석하면 동성혼도 인정된다"며 2014년 5월 법원에 불복신청을 제출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헌법과 민법 등 관련법은 구체적으로 성 구별적 용어를 사용해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점을 기본 전제로 놓고 있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선언한다"며 이를 각하했다.

이대웅 기자

교회맞선교회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 - 버질중학교 / 토요새벽 - 1가와 버몬트 코너
주중새벽-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20 수요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
연제선 담임목사
LA 온하늘교회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90019
T.(818)983-9024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90006
T.(213) 909-6473 / www.missionla.org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믿음교회
백천 세계 비전!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매일 성경통독 (월~토) 오전 7:0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1508 S. Vermont Ave., LA, C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1부 오전 8:0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주일예배3부 오전 11:00
박영천 담임목사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

1부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30
EM 예배 오후 1:00 토요공부방 토 오전 9:30~12:30
한어청년부 오후 1:30 어머니기도모임 수 오전 10:30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la.org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헌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11:00
김문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9:00 유초등부.중고등부 오전11:00
2부예배 오전11:00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주일 오후 1:30
수요집회 오후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분 (화~금)
오전 6:00 (토)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10:30
EM예배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30 목요찬양예배(목요일)오후 7:3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0:30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0:00
조인수 담임목사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주일오후 12:00
토요탈북민 모임 오전 11:00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장로교회 엔키아 선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407 W. 6th St. #412, Los Angeles, CA 90006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김요섭 담임목사
열매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323)737-3009 C. (213)215-8523

1부예배 오전 0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김종호 담임목사
예향선교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w@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30 금요기도회 오후9: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3부예배 오전 1:3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25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오전10: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김범수 치과
General & Cosmetic Dentistry
Bryan Kim D.M.D.
김범수 치과
1011 S. A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19
T.(213)389-0937, (213)389-0938 F.(323)735.1937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일독
대표 주해홍 목사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Ezra Bible Reading Ministry
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

LA동부, 팜스프링스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갓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성경공부 오전 9:30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영어회중예배-주일 오후 1:00
남가주새소망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872-2405 교회 , (503)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5:30 (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10:00~11:00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909) 388-2940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오전 11시 (본성전) 매일QT 월~금 오전 6: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목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기도회 오후 8:00
이승준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이창민 담임목사
L.A.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열린예배 오후 2:00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9~11시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어청년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샬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 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구원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금요성령대망회 금 오후 7:20
EM예배 오전 11:0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버뱅크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7:00 (토)
오후 1:00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hurch.com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
중고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 (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 (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낮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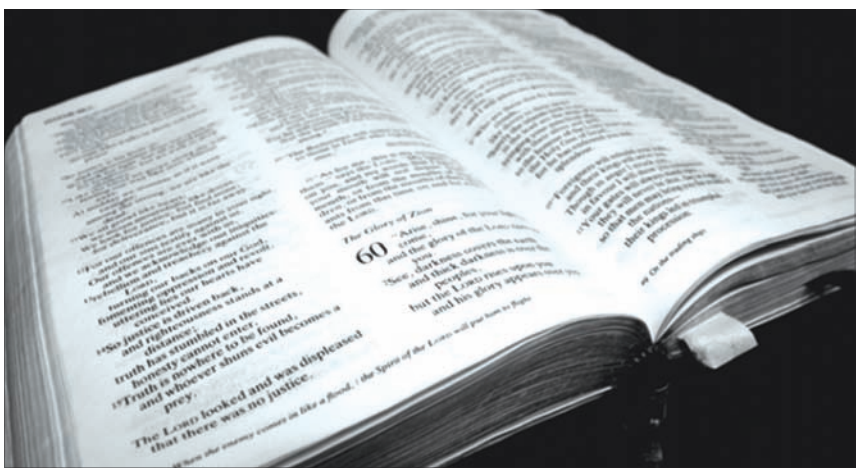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주일 2부 오전 9: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주일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주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 사랑의빛선교교회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후 1:30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새벽 예마 기도회 오전 5:30(월~금)
EM/YOUTH 예배 오후 1:30 금요예마기도회 오후 7:45
박정환 담임목사
예수인교회
Christian Missional Church
10452 Louise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434) 229-6597 / cmc-12.com / yesuin12@gmail.com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김인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West Hills Presbyterian Church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8: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818)363-5887
LA예배처소
주일 1부 예배 오전 8: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3460 Wilshire Blvd, Ste 700, LA, CA 90010
Tel: (213) 232-3163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성경번역가 박해 계속 증가

위클리프협회…성경번역자들 위한 기도 요청

[1면으로부터 계속] 지난달 기독교 자선단체인 월드헬프(World Help) 창립자이자 회장인 버논 브루어 박사는 성명에서 "역사상 기독교인들이 지금과 같이 박해를 받던 때는 없었다. 지난 100년 동안 나타난 기독교 순교자가 그 이전 시간을 모두 합한 시기보다 더 많다.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이 박해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경번역 사역자들에 대한 압제와 박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토착민 교회와 원주민들의 번역 도움 요청도 극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이 단체는 밝혔다.

한편 지난 2014년에는 빠른 번역을 위해 MAST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아시아의 한 팀은 2주 동안 신약의 48%를 번역할 수 있었다. 전통적인 번역 방식에 따르면, 신약 전체의 번역을 완성하는데 25~30년이 걸린다.

올해 신약이 약 58개 언어로 번역됐으며, 약 100개의 언어로 번역이 거의 완성돼가고 있다. 위클리프는 2017년까지 400개의 번역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혜진 기자

英 '기독교적 유산' 자랑스러워해야

테레사 메이 총리…종교의 자유는 매우 중요

英테레사 메이 수상

英 테레사 메이 총리가 기독교인들에게 "일터에서나 공공장소에서 신앙을 언급하라"고 권했다.

테레사 메이 총리는 11월 30일(현지시간) 의원들의 질의(Prime Minister's Questions) 시간에 "영국은 기독교적 유산과 언론자유의 전통을 자랑스러워해야 한다"면서 "개인적으로 종교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고 말했다.

기독교인인 피오나 브루스 하원의원은 기독교변호사협회(Lawyers Christian Fellowship)가 신앙에 대하여 두려움 없이 존중감을 갖고, 책임있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확정했다는 소식을 강조하며 종교의 자유에 관해 질의했다.

메이 총리는 "보도의 내용을 환영한다"면서 "영국은 언론의 자유와 종교적 관용의 강력한 전통을 가졌다. 일터에서 신앙에 대해 말하고 크리스마스에 관해서도 완전히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보장되길 우리 모두가 원한다고 확신한다"고 대답했다.

앞서 평등위원회 데이비드 이삭 위원은 "직장에서 종교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상식적인 접근'을 해야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삭 위원은 '연하장'을 선호하면서 성탄절 카드를 배제하거나, 직장에서 신앙에 대해 말하는 기독교인들을 고소하는 고용주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가해에 대한 두려움이나 법에 대한 이해 부족이 오해와 혼돈의 원인이 된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이며, 절대 공포에 의해 압제되어서는 안 된다. 많은 고용주들이 현재 무슬림이나 유대인 직원들에 대한 차별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당신은 왜 사역하나…교회가 바쁜 7가지 이유

톰 레이너 목사
ⓒ처치리더스닷컴

교회 지도자들은 바쁘기만 한 사역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남침례회 교회성장연구소의 톰 레이너 박사는 최근 처치리더스닷컴에 '교회가 바쁜 7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칼럼을 개제했다. 레이너 박사는 칼럼에서 "만약 지역교회가 사람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은 탈진을 경험한다. 많은 교인들은 너무 바쁘다. 또한 관계없어 보이는 활동으로 뒤죽박죽된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레이너 박사가 소개한 교회가 바쁜 7가지 이유다.

1.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면서 '왜'라고 묻지 않는다. 우리가 왜 이 사역을 시작하는가? 왜 이 사역을 계속해야 하는가? 왜 사람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는가? 교회가 새로운 사역에 대한 분명하고 설득력있는 목적을 갖고 있지 않을 때, 단지 또 다른 활동이 된다.

2. 교회들은 종종 사역을 없애기 위한 과정이나 계획이 없을 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거나 필요가 없는 사역도 계속 된다. 그리고 종종 우리가 집에 두는 잡동사니와 유사해진다.

3. 어떤 사역은 단순히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일 때가 있다. 때로 교회 지도자들은 교인들의 반발이 적은 방식을 취할 때가 있다. 교회에 가장 효과적인 사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 지도자들은 종종 아니라고 말하지 못할 때가 있다.

4. 어떤 사역들은 희생 제물이 되기도 한다. 이들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무시해도 될 만하다. 매우 소수만이 연관돼 있다. 그러나 이들을 없애자는 어떤 언급도 강력한 저항에 부딪힌다.

5. 많은 교회들에서 하고 있는 사역들이 유기적이지 않다. 학생 사역은 계획을 따로 세운다. 성인들을 위한 소그룹 사역은 교회 전체적인 사정과 상관없이 독자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 선교사역을 확장할 계획이 있지만, 나머지 교회들과 어떻게 연합해 가야할 지 묻지 않는다. 그러므로 10대 아이들을 둔 부부의 경우 모든 활동에 참여하고 싶지만, 계획이나 활동들이 서로 겹친다.

6. 일부분의 교회 지도자들은 항상 '네'라고 말하는 철학을 갖고 있다. 모든 이들이 사역에 열정을 보이길 원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철학은 동기 부여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수많은 각각의 사역들이 교회 활동에 더해지면서 생기는 혼돈과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

7. 대부분의 교회는 매년마다 사역을 평가하는 과정이 없다. 사역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없이 이를 계속 진행할 경우, 단순히 달력에 기록된, 잘 지나간 행사로만 기억될 수 있다. 교회 지도자의 역할은 매년 사역을 평가하는 것이다.

또한 사역을 계속하는 것이 좋은 청지기로서 역할인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기준이 있어야 한다.

강혜진 기자

15개국의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EU 위원회 모습.

중동 기독교인들 위한 '기도와 후원' 절실

독일복음주의교회위원회…그들은 기도와 물질적 후원 및 안식처 필요해

독일복음주의교회위원회(Evangelical Church in Germany) 하인리히 베드포드 스트롬(Heinrich Bedford-Strohm) 사제는 "그들(중동의 기독교인들)은 지지와 물질적 후원 뿐 아니라 안식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1월 30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는 "기독교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보호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그는 이라크 북부에서 지내던 당시를 언급하며 "많은 사람들이 내게 같은 일이 또 발생하면 고향을 떠날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에겐 유럽위원회와 다른 기관들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엔나 최고 랍비인 아리에 폴저는 EU가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호소했다.

그는 "기독교인들이 겪는 고난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특별히 중동의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핍박을 EU 국가들, 일반적으로 서방 국가들은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드미트리 아브라모폴리스 EU 이민 담당 집행위원은 "종교가 다른 이들을 포함해 모든 공동체에 다가가는 것은 모두를 위한 화목하고 포괄적인 사회를 만들고 지탱하는데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수주의, 외국인 혐오주의, 극단주의가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는 핵심 가치와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특별히 전쟁을 떠나온 이들과 국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환영하는 사회가 되도록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유로폴, IS '유럽테러' 가능성 커

유럽연합 경찰기구인 유로폴(Europol)은 최근 수니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나 IS의 사주를 받은 개인 또는 단체가 가까운 미래에 유럽에서 새로운 테러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유로폴은 특히 유럽에서 미국 주도로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진행 중인 IS 격퇴전에 참가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이 테러의 우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유로폴 산하 '유럽 대테러센터'는 이날 발표한 테러 관련 보고서에서 "일부 정보기관의 예상에 따르면, IS의 지령을 받는, 테러 공격력을 갖춘 수십명이 현재 유럽에 체류하고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IS가 정신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포함해 급진·과격화된 젊은이들을 테러 공격에 동원하는데 능숙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IS가 차량폭탄테러 등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사용 중인 테러수법을 유럽에서 저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IS가 동시다발적인 테러나 경찰이나 군 인사 등 상징적인 목표물에 대한 테러공격에서 '소프트타겟'(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테러에 나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혜진 기자

이라크, 'IS 격퇴' 로 사상자 크게 늘어

11월 한달만에…사망자만 3천여 명에 달해

수니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 격퇴를 위한 전투가 점점 격렬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라크에서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해 11월에만 3천명 가까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영국 BBC 방송과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의하면, 유엔은 이라크에서 지난달 사망한 군인과 경찰 특공대원 등이 10월보다 3배 많은 1,959명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숨진 민간인 926명을 더하면 사망자는 2,885명에 달한다. 민간인 부상자는 930명이다.

이라크군이 지난달 중순 모술 탈환전에 돌입하는 등 IS 격퇴전이 거세지면서 IS의 저항이 극심해져 사상자도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얀 쿠비시 유엔 이라크 특사는 "충격적인 수치"라면서 "IS는 모술, 니네베주 장악 지역을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매달리면서 민가를 사격 진지로 삼고 민간인을 납치하거나 강제 이주시키거나 인간방패로 쓰는 등 포악한 전술을 펼친다"고 비난했다.

강혜진 기자

파키스탄, 기독교인 보호 위한 길 열려

파키스탄 주의회…'이슬람으로의 강제 개종 금지법' 통과

파키스탄 기독교인들이 희망의 빛줄기를 찾았다.

기독교인들 부부를 잔인하게 살인한 5명의 무슬림이 사형 선고를 받은데 이어, 파키스탄 신드(Sindh)주 의회는 강제 개종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의 개종에 해당한다.

익스프레스 트리뷴에 따르면, 2015 신드형사법(소수자 보호법)은 소수종교인을 강제적으로 개종시키는 자는 징역 5년에 처하며, 개종을 조장하는 이들은 징역 3년에 처한다.

영국에 소재한 법률자문센터 CLAAS(Centre for Legal Aid, Assistance and Settlement)의 나지르 사에드(Nasir Saeed) 센터장은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파키스탄 기독교인들의 보호를 위한 큰 진보"라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법안은 이슬람으로 강제 개종시키는 사례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수종교인들 가운데 확신과 보호받고 있다는 감정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안은 "강제 개종은 폭력적인 공격이며, 신드 전역에 걸쳐 일반화 돼 있다. 모든 종교와 사람들을 존중하고, 인내와 평화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이를 제거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대와평화운동(Movement for Solidarity and Peace)에 의하면, 약 700명의 기독교 여성이 매년 이슬람으로 강제 개종하고 있다.

사에드 센터장은 "경찰은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해 특별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무슬림 공동체의 압박과 반응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도 움직임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O.C./얼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주일 9:00AM
주일예배 2부 주일 11:00AM
주일학교 주일 11:00AM
대학청년부/E-college 주일 2:00PM
제자훈련/사역훈련 화~목 7:30PM
새벽예배 월-금 5:30AM 토 6:30AM
NEXT한국학교 토 9:30AM~1:00PM
NEXT Kids club 주일 12:40AM~1:40PM
김일영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NEXT Sa-Rang Church
11 Musick Irvine, CA 92618 Tel (949)829-0010(office)
www.nextsarang.com

주일예배 (1부) 10:00am (2부) 1:3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화요중보기도회 7:00pm
수요돌파기도회 9:00pm
금요온전철야예배 8:00pm
- (다음날) 7:00am
토요청년예배 7: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 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7: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셀가족 예배 :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벧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806-2562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11:00
영 유아부 오전 11:00
유 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 오전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EM,대학부 오후 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토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te)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an.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박재만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3111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2부 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토요새벽 오전 6:00 본당
금요공부 저녁 8:00 본당
허귀암 담임목사
놀웍연합감리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3000 San Antonio Dr., Norwalk,CA 90650
T.(562)802-4959 C.(714)308-7308 / usa8291@gmail.com

주일예배(KM) 주일11:00am
영어예배(EM) 주일 9: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금요찬양예배 8:00pm
(매월 두번째 금)
새벽예배 화~금 5:30am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11:30
금요예배 오후8시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EM주일 오전11:30
교육부 오전11:30
김일권 담임목사
다감사교회
The Gamsa Community Church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988-3321, www.dagamsa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8:30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토 새벽 6:20
고현종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30
금요 Alpha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이 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일본어 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 기도모임 오후 8:00
토요한글학교, 에프터스쿨
P-kinder(Korean) 오전 11:00
Children(1-6) 오전 11:00
Youth(7-12) 오전 11:00
College 오후 1:00
이동준 담임목사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250-1111 / www.beautiful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중등부 오전9:15
고등부 오전11:30
한어부 오전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권혁빈 담당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주일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홍성준 담임목사
얼바인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769-9628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FAME예배 오전 11:30 (장년 영어)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장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박경호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예배 오전 9:00 &10:30
새벽예배 화~토 5:30, 토 6:00
금요예배 오후 7:30
김민재 담임목사
예친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4221 Rose Dr., Yorba Linda, CA 92886(Worship Center)
T. (714)788-3677 / www.yechinchurch.com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주일1부예배 오전8:15
주일2부예배 오전10:00
주일3부예배 오전11:45
영어주일예배 오전10:00
유년부.초등부예배 오전11:30
영어중고등부예배 오전11:30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10: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5:30, 토.주일 오전6:00
엄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3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수요기도회 : 오후 8:00
새벽기도 :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플러튼 채플 Fullerton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목요영성집회: 7:45pm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T. (657)217-5558

주일 섭김이 예배 : 오전 9:00am
주일 한국어 예배 : 오전 11:00a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주일 유초등 예배 : 오전 11:00am
금요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pm
새벽기도: 월-금요일 오전 5:30am
토요일 오전 6:00am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om
E-mail : info@Pottersc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조원재 담임목사
하나님의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1등 아메리카 대륙

푸른투어LA cst# 212654040
PRT Tour & Consulting

문의전화 (213)739-2222 인터넷예약 www.PRTTOUR.com

뉴저지 본사	플러싱 지사	로스엔젤레스 지사	토론토 지사	서울 지사
(201)313-0899	(718)928-3333	(213)739-2222	(647)686-6000	(02)739-0890
725 Grand Ave #305 Ridgefield, NJ 07657	154-08 Northern Blvd #2B Flushing, NY 11354	3170 W. Olympic Blvd. #A Los Angeles, CA 90006	5467 Yonge Street, Suite 2B Toronto, ON. M2N 5S1	Doosan We've 58 #1238 Jongno-gu, Seoul

여행설계사 데비드강의 여행이야기 AM 1650 매주 화 1:30pm

Merry CHRISTMAS HAPPY NEW YEAR

크리스마스 연말 시즌

추수감사절~ 폭발적인 인기상품을 이번 크리스마스, 새해 첫날(해돋이)에도 함께 하세요~

레인보우 브릿지

3일 ▶12월 24일 ▶12월 31일 $345

1 서부 최고의 비경 '레인보우 브릿지 유람선 포함 ($150 상당)'
2 레인보우 브릿지로의 가벼운 산책후 만나는 300피트 자연석조다리

세도나 해돋이 / 미티어 크레이터

3일 ▶12월 24일 ▶12월 30일 $249

1 세계 최대 운석분화구, 미티어 크레이터
2 '세도나 해돋이'를 가족과 연인과 함께하세요~

라스베가스 자유여행 특급 벨라지오 숙박

3일 ▶12월 24일 $345

라스베가스 특급 벨라지오 호텔!

1 라스베가스 최고호텔 '벨라지오 숙박'
2 가족과 연인과 여유있게/자유롭게 크리스마스를 함께하세요 ~ (관광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레드락캐년/후버댐 옵션관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객감사 특선상품 100명 선착순! 조슈아 트리 온천 여행

1박 2일 ▶12월 15일 $99

Special

1 조슈아 트리 별보기
2 카바존 아울렛
3 샌 하신토 케이블카 탑승
4 데저트 핫 스프링스 온천

Ho! Ho! Ho!

푸른투어의 자존심~ 명품 IVY 리그

5박 6일 브라운/예일/하버드/MIT/프린스턴 유펜/존스홉킨스/콜롬비아 ▶매주 화/토 $1,090

7박 8일 브라운/예일/하버드/MIT/프린스턴 유펜/콜롬비아(나이아가라) ▶매주 수 $1,160

① 재학생 투어 총 3회 <예일/하버드/유펜>
② IVY 전문 가이드와 함께 캠퍼스 투어 ③ 3명 이상 출발

바하마 관광청과 함께하는 바하마

관광성 장관배 골프 투어

3박 4일 $1,300 ▶관광 $1,600 ▶골프 (항공포함) ▶2/3

허니문 투어 (항공포함)

7박 8일 $2,400 부터 ▶수시출발

올 인클루시브 (All Inclusive)

북해도 온천 +동경까지 7일

$2,999 ▶2/15

1 노팁! 노옵션! 항공포함! 인솔자 동행
2 삿포로 특식 3대게 무한리필 특선!

오로라 알래스카 기차여행 5일

$1,300 +항공 ▶목요일

1 설국에서 즐기는 노천온천
2 '설국열차'타고 알래스카 횡단

칸쿤 치첸이사 옴니 칸쿤 - 오션뷰 보장! 4일

$1,199 (항공포함)
▶1차 특별출발 : 1월 16일
▶2차 특별출발 : 2월 13일

5성급 옴니리조트와 함께하는 올인클루시브(무제한 식사/음료/주류 모두포함)

코스타리카 5일

▶4명 이상 출발 가능 / 그외 날짜 문의

$1,499 → $1,399 ▶1/23 [특별출발] (항공포함)

코스타리카 3박4일	▶12/20	$920 +항공
코스타리카 4박5일	▶12/21,22,23 1/20	$1,030 +항공
코스타리카 5박6일	▶1/16,30 2/8	$1,150 +항공

아레날 화산 / 따바콘 노천 온천욕을 즐기세요

아시아 아시아 특선

▶ 수시출발 / 맞춤상담

-홍콩	4일	-방콕/파타야	5일
-앙코르왓	5일	-대만	4일
-싱가폴	5일	-싱가폴/바탐	5일
-푸켓	5일	-세부	5일
-발리	5일	-코타키나발루	5일

-동남아 일주 (홍콩/방콕/싱가폴) 9일
-하롱베이/앙코르왓 6일
-하롱베이/하노이 5일

중국 중국 특선

▶ 수시출발 / 맞춤상담

-북경	4일	-계림	5일
-장가계	5일	-서안	4일
-항주/서당/상해	4일	-중국일주	11일

-북경/계림/장가계/서안 8일
-계림/장가계/서안 6일
-계림/장가계/서안/항주/상해 9일

인도 인도 골든트라이앵글 문화탐당 11일

▶1/15,2/19,3/19 $3,450

- 카쥬라호 포함, 푸른투어만의 차별화된 인도 특선
- 세계 7대 불가사의인 무굴왕조의 사자한왕의 걸작품 타지마할

푸른투어는 미국 서부, 동부, 캐나다 모든 여행을 직접 진행합니다.

1등 아메리카 대륙

라스베가스 벨라지오 호텔숙박

추가요금이 없습니다

3일	그랜드캐년 / 라스베가스	▶매주화 출발	$299
4일	실속 4대 캐년	▶매주화 출발	$389
6일	실속 미서부 일주	▶매주화/토 출발	$599
7일	4대 캐년 + 요세미티 / 샌프시스코	▶매주화/토 출발	$689

자이언 / 브라이스 / 앤텔로프 / 그랜드 캐년 미서부 4대 캐년 3박 4일

특급 벨라지오 숙박 $389

▶ 자이언/브라이스/앤텔로프/그랜드 캐년
바스토우 - 라스베가스 - 자이언 - 브라이스 - 라플린 - 캘리코

미서부

매주 화요일 특급 벨라지오 호텔 숙박

3대 캐년	4일	$389
3대 캐년 +요세미티/샌프란시스코	7일	$689
▶ 매주 월 그랜드 캐년 / 브라이스 캐년 / 자이언 캐년		
4대 캐년 (벨라지오)	4일	$389
4대 캐년 +요세미티/샌프란시스코	7일	$689
▶ 4일 매주 화 - 7일 매주 화 / 토 3대 캐년 + 앤텔로프 캐년		
그랜드 캐년 / 라스베가스 (벨라지오)	3일	$299
▶ 매주 화 / 토		
요세미티 / 샌프란시스코	4일	$389
▶ 매주 월 / 목 / 금 / 토		
미서부 실속 여행 (벨라지오)	6일	$599
▶ 매주 화 / 토		

고객감사 한정 특가! 세도나 3일 $149

▶12/12, 19
[세도나 트롤리/슬라이드 락 선택가능] [단 2회]

LA 일일투어 ▶매일 출발 $59
(50인승 전용차량, 한인가이드, 중식불포함)
올베라거리/다운타운/다저스스타디움/그리피스천문대/헐리웃거리/로데오거리(차창관광)/산타모니카해변 파머스 마켓/그로브 몰 등

캐나다

-샤토프롱트낙 숙박

퀘벡 2박3일 ▶매주 토 $429 +항공
▶세계문화유산 리도홀 / 성요셉 성당 / 노틀담 드캅 성당 / 몽모렌시 폭포

미동부

$100 상당의 3대 옵션 포함
1) 자유의 여신상
2)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입장료
3) 안개속의 숙녀호 탑승

실속 미동부 5일 (뉴욕/워싱턴 DC/나이아가라)	▶ 매주 수/토	$799 (항공포함)
미동부/천섬 6일 (미동부 5일 + 토론토/천섬)	▶ 매주 수/토	$899 (항공포함)
미동부/보스턴 7일 (미동부 5일 + 보스턴/뉴포트)	▶ 매주 수/토	$1,049 (항공포함)
미동부/천섬/보스턴 8일 (미동부/천섬 6일 + 보스턴/뉴포트)	▶ 매주 수/토	$1,099 (항공포함)
미동부/캐나다 8일 (미동부/천섬 6일 + 몬트리올, 레이크조지, 퀘벡)	▶ 매주 수/토	$1,099 (항공포함)
미동부/천섬/보스턴/캐나다 10일 (미동부/캐나다 8일 + 보스턴/뉴포트)	▶ 매주 수/토	$1,299 (항공포함)

광고상의 모든 컨디션, 가격, 일정, 호텔 등은 현지사정에 의해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항공상품은 비수기 기준으로 성수기시요금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15)

여리고…상천하지에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下)

◈요새였던 여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모세는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성벽이 하늘에 닿는 큰 성읍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신명기 9:1).

케년의 세심한 조사는 여리고가 정말로 강력하게 요새화되었고 그것이 불탔었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녀는 그 유적들의 연대를 잘못 추정한 결과, 고고학적 발견과 성경의 기록이 불일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그녀는 청동기 시대의 여리고성은 BC1550년 경에 이집트에 의하여 파괴되었다고 결론내렸던 것이다. 그러나 증거물들을 더 심층 분석해 본 결과, 파괴는 BC1400년경에 (후기 청동기 1기 말에) 발생했고, 이것은 성경에서의 정복 연대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었다.

여리고성이 있던 구릉은 아래쪽에 돌로 된 옹벽(기초성벽)이 있는 거대한 토벽으로 둘러쌓여 있었다. 옹벽은 무려 12~15피트(4~5m)의 높이에 달했다. 이 옹벽 위로 폭 6.6피트, 높이 20~26피트의 진흙벽돌로 된 성벽(외벽)이 있었다. 이 진흙벽돌의 제방(둑) 위로는 유사한 진흙벽돌로 된 성벽(내벽)이 있었는데, 그 내벽의 기저부위는 외벽의 바깥쪽 땅에 비해서 46피트나 높았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7일 동안 매일 성 주위를 돌면서 행진할 때 그들 위에 아스라이 보였던 것이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의 이 굳건한 요새를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내벽 안쪽의 도시 면적은 약 6 에이커(환산하면 약 200m x 120m) 정도이지만, 안쪽 도시와 요새화된 성벽들이 차지하는 면적들을 다 합하면, 전체 면적은 50%가 더 넓어져서 약 9 에이커 정도가 된다. 고고학자들이 추정하는 에이커 당 200명을 기준으로 하면, 상부 도시의 인구는 대략 1,200명 정도였을 것이다. 그러나 금세기초 독일 팀의 발굴 결과에 의하면, 사람들이 외벽과 내벽 사이의 제방에서도 살았다. 또한 성 주변의 마을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도 성 안으로 피난을 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공격했을 때 수천 명이 성 안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무너진 성벽

여리고 성의 거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위에 대해 잘 대비하고 있었다. 고대는 물론이었고 현재에도 여리고 성내에는 충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샘이 성벽 안쪽에 있다. 공격 시점은 수확이 막 끝난 시기였으므로(여호수아 3:15), 그들은 충분한 식량도 준비하고 있었다. 이것은 1930년대에 존 가스탕(John Garstang)의 발굴 자료와 또한 캐슬린 케년의 발굴에서, 가나안 인들의 집들에서 곡식이 가득 찬 항아리들이 발견된 사실로도 입증이 된다. 풍부한 식량 공급과 충분한 물이 있었으므로, 여리고 백성들은 아마 몇 년 동안을 버틸 수 있었을 것이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7일째에 성 주위를 일곱 번 돌고 난 후에,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fell down flat)"로 기록되어 있다(여호수아 6:20). 여기서 히브리어의 의미는 성벽이 "성벽 아래로 무너졌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여리고에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었다는 증거가 있는가? 여리고 성이 종말을 맞았을 때, 진흙벽돌 성벽이 무너져 내려서 외벽의 아래 부분에 쌓여졌다는 충분한 증거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경에 따르면, 라합의 집은 요새화된 성벽의 일부분으로 되어 있었다(여호수아 2:15). 만일 성벽이 무너졌다면, 라합의 집은 어떻게 남아 있을 수 있었을까? 알다시피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그녀의 가족들을 그녀의 집안으로 대피시키면 구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시를 점령했을 때, 약속대로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은 구조되었다(여호수아 2:12~21, 6:17, 22~23). 여리고 성의 둔덕 북쪽 끝에서 고고학자들은 라합에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다.

성벽이 무너지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16피트 높이의 하부 옹벽을 넘어갈 수 있었을까? 발굴결과에 의하면 무너져 내린 외벽의 진흙벽돌들이 옹벽 옆에 쌓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경사로를 형성했던 것을 보여준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도시에 들어갔던 방법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여호수아 6:20). 이스라엘 백성은 올라가야만 했고, 그것이 바로 고고학이 밝혀낸 것이다. 그들은 도시로 들어가기 위해서 구릉의 바닥 부분인 지상에서 방어벽 위로 올라가야만 했다("…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찌니라"(여호수아 6:5절)).

◈화재에 의한 파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시와 그 안의 모든 것들을 불태웠다.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여호수아 6:24). 고고학적 발견은 이 기록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 파괴된 성의 동편 일부분이 발굴되었다. 고고학자들은 어디에서든 발굴이 일정 깊이에 도달하면 3피트 정도 두께의 재와 불에 탄 잔해들이 발견되었다. 케년은 이러한 파괴를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파괴는 철저했다. 벽과 바닥들은 화재로 인해 검거나 붉게 타 있었고, 방마다 쏟아진 벽돌, 목재들, 가재 집기들로 가득 차 있었다. 대부분의 방에 떨어져 있는 파손된 잔해들은 심하게 불탔지만 동쪽 방들의 벽들은 화재의 영향을 받기 전에 붕괴되었던 것처럼 보인다."

가스탕과 케년은 둘 다 불에 의해서 파괴된 곡물로 가득한 많은 저장 항아리(storage jars)들을 발견했다. 이것은 고고학적 기록에서 매우 특별한 발견이다. 곡물은 단지 식품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으로 교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치도 있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곡물과 같은 귀중품은 정복자에 의해 약탈되는 법이다. 여리고에서는 왜 곡물이 그대로 남겨져 있는가? 그 해답은 성경에 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읍과 그 안의 모든 것들을 여호와에 바치라고 명령했다(여호수아 6:17).

여리고에 남아 있어서 현대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견된 곡물은 3500년 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단지 아간만이 순종하지 않았고, 그 결과로 여호수아 7장에 기록된 대로 아이성에서의 참패로 이어졌던 것이다.

그런 많은 곡물들을 손대지 않고 남겨둔 것은 성경기록의 또 다른 면의 진실을 조용히 증언하고 있다. 풍부한 식량과 물의 공급이 있고 강력하게 요새화된 성을 정복하는 데에는 통상 몇 달, 심지어는 몇 해가 걸릴 것이다. 성경은 여리고가 단지 7일 후에 함락되었다고 말한다. 여리고의 폐허에서 발견된 곡물 항아리들이 가득 차 있음은 성 안의 백성들이 곡물을 거의 소비하지 않았고, 포위기간이 짧았던 것을 나타낸다.

◈오늘날의 여리고

현재의 여리고는 비잔틴 시대의 터 위에 재건되었으며, 옛 여리고는 텔 에스 술탄으로 20세기 초에 발굴되었다고 한다.

여리고 시내에는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가 있다 나무의 수령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크다. 모두가 알다시피 삭개오를 만나준 예수님의 행적은 곧 라합의 구원을 생각하게 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다시 생각할 수 있고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삭개오와의(눅 19장) 만남을 통하여 극적으로 설명되어 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소경거지 바디매오를 만나 주신 것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나타내 주신 것이라 볼 수 있겠다(막 10:46).

오늘날의 여리고 모습.

삭개오의 뽕나무 옆에 흐르는 시냇물은(지금은 시멘트로 뚜껑을 만들어 놓았음) 엘리사 시대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다던 여리고 백성들을 위해 엘리사가 단물로 만들어 주었던 그 물이다. 여리고에 가면 이와같이 여리고성의 흔적, 삭개오의 뽕나무, 엘리사의 샘물을 만날 수 있고 그 외에 서쪽에는 헤롯 겨울별장의 유적이 있고 동쪽으로는 8세기 아랍시대에 만들어진 히샴의 궁전 유적이 있다.

여리고 건너편 느보산에서 여리고를 내려다보면 그 푸른 모습에 한달음에 달려 내려오고 싶은 곳이다. 유대광야와 사해, 그리고 요단강 주변 중 가장 발달한 곳이고 과실수와 물이 풍부했던 오아시스의 도시가 여리고다. 이 아름다운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는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정복되었던 것이다.

이 도시는 1996년 이후로 팔레스타인 자치지구가 되었다. 약 25,000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이 도시에는 오직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만이 살아간다. 이들은 아직도 모슬렘 종교를 가지고 있다.

여리고 건너편 요단강 동편 베다니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곳이 있고. 엘리야는 이곳에서 불 수레를 타고 회오리바람과 함께 승천하였다. 그리고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받고 여리고에 선지학교를 세워 선지 생도들을 양성하기도 하였다.

◈여리고의 교훈

고고학과 성경 사이의 외견상 불일치 때문에, 여리고는 한때 성경 속의 이야기로만 여겨졌었다. 그러나 정확한 고고학적 해석을 바탕으로 정반대임이 밝혀지게 된 것이다. 고고학적 증거들은 모든 세부사항에서 성경의 기록과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일치한다. 고고학적 발견은 여리고성에 관한 모든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입증하였던 것이다.

여리고의 성벽이 어떻게 무너졌는가에 대해서는 그 해석이 분분하다. 가스탕과 케년은 둘 다 도시가 종말을 맞았을 때에 지진 활동이 있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날 하나님의 목적 달성을 위해 지진을 사용하셨더라도, 지진이 필요한 정확한 시점에 일어났고, 라합의 집을 보호했던 것은 여전히 기적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든지,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통해 성벽을 무너뜨리신 것이다. 백성들이 7일 동안 성벽 주위를 행진하고 난 후에, 여리고의 벽은 믿음으로 인해 무너졌던 것이다(히브리서 11:30).

여리고는 세속적 학문으로는 성경과 일부 일치하지 않더라도 성경의 기록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영적 교훈이 되고 있다.

때로는 우리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거대한 요새와 같은 성벽에 직면하곤 한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따른다면, 하나님께서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셔서(예레미야 33:3)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계속〉

서병길 교수
캘리포니아신학교

필자와 함께 가는 영성나들이
이스라엘-요르단
2017년 3월 20일~30일
*문의: 213-505-1583
*이메일: iskms@hanmail.net

2016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총회장 김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213)381-0081, FAX:(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김시온 목사 T(213)407-4569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류종길 박사, 이사장 : 김광렬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imaster@gmail.com

총신 대학교 신학 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캘리포니아주교육국(BPPE)인준 정식 학위 수여
수시입학(통신가능),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모집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 강도사 거쳐 목사 안수
모든 민족국제복음주의 총회에서 목사 안수
총장 : 이동규 박사 학장 : PASTOR YOUNG CHOI
978 S. Hoover St #201, LA, CA 90006
T.(213)386-0300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전: Sevis I-20 발행/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 Woodland Dr. #200,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온라인 쇼핑 비지니스
주부, 여자 유학생 환영
주 8~10시간 사용하여 엑스트라 수입을 창출
연락처 T(818)590-6078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Classified AD

중고차 황제 김기형

Family 자동차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 중고차 최고가 매입 $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한의사랑
한의사 Zo'e 조애
Tel:(213)718-8275
이제마 사상 체질 맥 30년 전문
체질맥, 장부맥, 병맥, 설진
심혈관 질환, 간질환, 중풍, 소화기문제, 내분비문제, 부인병, 고혈압, 당뇨, 부종, 알러지, 신장병, 각종통증, 갱년기, 생리불순 (아들 원하시는 분)
2120 W.8th St. #208, LA, CA 90057(8th& Lake St.) (월수토 예약 필수)

주님미디어닷컴 전도용품 및 배너 CD 할인행사
오픈 기념
CD Printing + Papersleeve=$300
환영배너 스텐드포함 $65 (물티슈를 제외한 전 품목 Free Shipping!!!)
미디어선교에 앞장서는 탑미디어에서 귀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역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 기독교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주님미디어 닷컴을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보다 편리한 구매와 저렴한 가격, 세련된 디자인으로 귀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섬기시는 사역과 사업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junimmedia@gmail.com
Call : 323.265.0244
CD,DVD 제작전문, 각종 인쇄, 현수막, 각종 사인(실내외,차량) 제작, 판촉물인쇄 전문
junimmedia.com 개척교회 및 신학교, 선교단체를 위한 특별할인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으니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축제 준비를 위한 전도용품, 새가족 선물용시디앨범을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전도대상자 또는 방문자에게 교회를 알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1.전도용품 세일
✦ 전도물티슈 ✦
✦ 볼펜 ✦
전도용물티슈 1,000set($380) 고급향균 물티슈! 1set에 10매가 들어 있습니다.
✦ 전도엽서 ✦
각종행사용품 및 전도용품, 선물용품이 구비되어 있으니 웹사이트를 방문하시어 더욱 다양한 샘플과 할인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 전도용 설교시디 소량도 제작가능합니다.
3. 새가족 및 방문자 선물용 찬양, 설교시디앨범
4. 각종 배너 모든 사이즈 제작 가능!!!
5. 환영배너 (스텐드 포함 $65) Free Shipping!!!

시티보험 자회사 CA Lic. #0156071
실버시티보험
메디케어 올해 65세 되십니까?
메디케어 신규 보험 가입 & 변경기간 10월 15일 ~ 12월 7일
■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Part C)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 메디케어/메디칼 (변경기간 상관없음)
■ 메디커넥트 등 무료 상담해 드립니다.
무료 상담 213-321-0302 Connie Kim(김 경미)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왕만두 (10개 $10)
팥찐빵
부추교자 (50개 $20)
김치교자
무료배달 ($40이상 주문시)
손으로 정성껏 만듭니다.
인하손만두 626.731.7864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S라인 8회 $999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 습진 화농성 여드름
✓ 손가락 ✓ 발가락 ✓ 마디관절 {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톱, 발톱 질환
* 지독한 코골이 증상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 (자궁혹, 하혈)
• TMJ 턱관절 장애
• 우울증
• 관절염, 다리 쥐 오름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만성두통, 요통
*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약 취급합니다.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배 빼는 숙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활성산소 제거?
해답은 수소수!
좋은 물을 마시면 우리의 건강이 좋아집니다
노화를 촉진하고 세포와 DNA를 공격하여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병들의 원인이 바로 활성산소(독성산소, Free Radicals)이며, 수소는 그런 활성산소와 결합하여, 우리 몸에서 부작용이 전혀 없는 물로 변환되어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수소의 역할
– 대표적 활성산소인 하이드록시 래디컬과 결합해서 몸에서 배출
– 체내의 염증을 제거하여 통증을 완화
– 미세분자상태로 체내의 모든 부분, 심지어 뇌까지 도달되어 활성산소를 제거
본 수소수기의 특징
1) 2중 역삼투압 방식에 의한 순수한 원수를 바탕으로 고농도(800~1,000ppb)의 수소수를 생성하며, 물의 성질은 우리 몸에 가장 적합한 약알카리 상태가 됩니다.
2) 대용량 필터를 사용하여, 깨끗한 물을 생산한 별도의 전해조에서 생산된 수소가스를 우리가 음용하는 물에 가압하는 첨단방식으로 즉시 물을 드실 수 있고 오랜기간을 사용해도 수소가스의 농도가 유지됩니다.
수소수의 활성 산소 제거 과정
수소 활성산소 → 체내에 물과 함께 흡수된 수소가 분리되어
수소 활성산소 → 몸에 나쁜 활성산소와 결합이 되고
H_2O → 무해한 물로 바뀌어 소변이나 땀등으로 배출됩니다.
프랑스 "루르드 샘물"
독 일 "노르데나우 샘물"
멕시코 "트라코테 샘물"
세계 3대 샘물의 비밀
기적의 수소수를 가정에서 드세요!
시금치 90다발 바나나 1512개 사과 1032개 당근 76개 큰호박 7개
일본의 시타마대학교의 하타나 가주끼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수소농도 1,000ppb의 경우에 베타카로틴 함량 기준으로, 위와 같은 양의 항산화 물질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 항산화 물질은 들어갈 수 없는 뇌 속이나 깊은 장기의 미세조직까지도 수소는 도달될 수 있으며 도달된 수소는 활성산소들을 물로 변환시키므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높은 용존 수소량 · 가정용 수소수기 · 강력한 환원능력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수소수 무료 시음!
깨끗하고 건강한 물 드시러 오세요.
한국의 키친아트 PLUS 에서 생산된 우수한 제품입니다.
CTP 100 $1,390+Tax – 1년 필터교환 무상 – 냉, 온수 정수기
GSPH 100 $2,990+Tax – 1년 필터교환 무상 – 냉, 온수 수소수기
Pure & Good Hydrogen Generator with Water Purifier
구입 문의 Tel. 213)434-1170 PRO-Z USA, Inc. 621 S.Virgil Ave. Suite 100 Los Angeles, CA 90005

● 종교개혁 500주년 지상 강좌

종교개혁의 비전과 신학사상의 재발견(2)

김 재 성 부총장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1. 개혁의 비전과 성경의 권위회복

한국교회가 직면한 부패와 무능력을 고치기 위해서는 지난 오백년 동안 계승해 내려 온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교훈들에 대해서 주목하게 된다.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친 핵심 내용들을 살펴볼 때에, 한국교회가 총체적으로 개혁하고 갱신해야만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교회의 개혁을 진정으로 갈망한다면, 종교개혁자들이 역점을 두고 노력하였던 일들, 그들이 성취했던 역사적인 업적들을 살펴보아야만 한다.

따라서 지금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두 가지 영역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종교개혁의 영향력과 교훈들 속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 사항들이었고, 한국교회도 철저히 되새겨야할 본질적인 가르침이라고 생각한다.

첫째로, 종교개혁의 정신은 성경에 근거하여 온전하고 보편적인 기독교 교회를 재건하려 했음을 재론하고자 한다. 이런 성경중심적인 사고방식은 지금도 한국교회를 갱신하고 개혁하는 본질적인 내용이 되어야만 한다. 한국교회의 강단과 예배가 성경의 본질로 되돌아 가야만 한다.

둘째로는 성도의 봉사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인간의 부패한 본성에 대해서 성경의 선언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만 한다.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예외없이 죄를 범하였고, 부패와 오염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인간의 본질을 말씀과 성령으로 갱신하고 고쳐나가지 않는다면,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이라도 결국에는 망하고 만다.

그런데도 한국교회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하는 일은 도외시하고, 명예욕과 물질욕에 빠져있다. 교회들마다 지나치게 세속화된 경쟁의식에 휩싸여 있으며, 개교회주의에 빠져있는 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각 교회가 전도와 양육활동을 하거나 예배와 선교 사역 등 핵심적인 목양적 활동들을 전개하면서도 이기적인 양적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결국 성경적인 메시지는 사라지고, 자기 교회만을 정당화하고 자랑하려는 상업주의에 빠져버렸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과연 우리가 누구인가를 겸허하게 되돌아 보아야만 한다.

부패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예외적일 수 없다는 성경적인 인간론을 뼈저리게 받아들여야만 한다. 우월인간의 본성과 본질에 대한 엄숙한 재발견이었다는 점을 밝혀보고자 한다.

인간이란 무엇이며(시편 8:4), 과연 사람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들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만 한다. 교황이나 성직자들이나 수도자들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별수 없이 죄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은 순수한 성경의 가르침을 외쳤던 것이다.

성경은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며, 과연 어떤 상태에 놓여있는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인간의 부패에 대한 통렬한 분석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16세기 종교개혁은 결국 사람들이 성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람들을 깨워서 일을 도모하도록 도와주셨다. 그들은 자신들이 부패한 존재라는 점을 받아들이고, 단 한번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받아들였다. 지상에서는 완벽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하는 교회"(Semper reformanda!) 가 되어야 한다고 확신하였다.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엉겅퀴와 가시로 뒤엉킨 세상 속에 교회가 세워진 까닭에, 각 교회가 처한 시대마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세속의 영향이 들어와 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는 자연적 지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땅 위에서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들을 목격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인식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롬 1:18~25).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분별력이 필요하며, 갱신을 요구하는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이 추구했던 교회의 갱신과 개혁적인 제안들은 성경의 권위에 철저히 의존하였다. 비록 그들 사이에 서로 해석의 차이점들이 있고, 간혹 대립되는 부분들이 있다하더라도, 로마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성경에만 의존한다는 정신이 철저했다. 로마 가톨릭에서 주장하던 전통이나 교회의 수장, 교황이 권위의 핵심이었으나,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종권위를 바꾸었다는 점은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에 의해서 모든 교리들을 판단하라고 성도들에게 촉구하였다.

종교개혁 이전에 로마 가톨릭 미사의 내용에서는 설교가 없었다. 유명한 설교자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행사에서만 강연이 있었을 뿐이다. 비로소 종교개혁자들에 이르러서 말씀의 선포가 정규적으로 강조되었고, 성도들의 교화를 이루고자 노력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미숙한 대중들이 이해할 수 없는 모호한 토론 주제들을 다루었을 뿐이었고, 청중을 잠에 빠져들게 하지 않으려고 달콤한 이야기나 재미있는 생각들을 사용하였다. 성경 말씀은 거의 들을 수 없었고, 자신들의 경박한 말을 두둔하려고만 끌어왔을 뿐이다.

루터 (1483~1546)와 칼빈(1509~1564)은 말씀과 연계된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였는데,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루터(앞줄 가운데)의 칭의론은 성경에 무지한 성도들을 깨우쳤다.

성경을 읽거나 가르침을 받는 동안에 그리고 성경을 선포하는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반응을 일으킨다고 강조했다.

루터와 칼빈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가톨릭의 성직중심주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교회 내에서는 오직 공식적인 대언자의 신분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만 어떤 특수한 방식으로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주장하였다.

로마 가톨릭에 의하면, 이 직분이란 기독교 신앙의 해석자들로서 인정을 받은 주교들의 상하조직체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은 초대교부들의 삼위일체 신론을 회복하게 되는 성과를 가져왔다. 루터와 칼빈과 크랜머 등은 성부와 성자, 특히 성령의 사역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결국 로마 가톨릭 신부였던 레이몬드 브라운도 종교개혁자들의 강조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종교개혁은 서구 기독교회 사이에서 하나의 전쟁이었다. 서구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는 신앙으로 통일되어 있었으나, 어떻게 성령이 교회 안에서 기능을 감당하느냐를 놓고서는 나뉘어졌다."

칼빈은 죄로 인하여 부패되고 어두워진 인간에게는 오직 성령의 내적증거(testimonium internum Spiritus Sancti)가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서 공적인 지위를 가진 신부가 7가지 성례라는 수단을 진행할 때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만 은혜가 주입되어진다고 가르쳤다.

칼빈은 구원의 적용사역에서 핵심은 성령의 역사임을 성경대로 회복시켰고, 성령의 주권을 강조하였다. 워필드 박사는 이런 점에서 칼빈을 "성령의 신학자"(The Theologian of the Holy Spirit)라고 특별하게 지칭하였다.

마치 루터를 "칭의의 신학자," 혹은 초대교부 중에서 아다나시우스를 "성육신의 신학자"라고 부르는 것과 유사하게 칼빈의 공헌은 높이 평가를 받고 있다.

종교개혁 시대의 전환점에 이르게 되면, 영국의 존 오웬이 제시한 주제별 강해와 설교에는 성령의 인격성,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 성령의 작동들에 관하여 다루었고, 4세기 가이사랴의 바실이 남긴 〈성령에 관하여〉에 대조되는 기념비적인 저술을 남겼다.

루터의 칭의론은 성경에 무지한 성도들을 깨우쳤다.

루터는 〈소요리문답〉 서문에서 성경에 대한 무지가 만연했음에 놀라움을 표현한 바 있다.

종교개혁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우선성에 공감한 것은 그들의 양심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깨우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루터와 칼빈이 서로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이들은 같은 신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있었다.

칼빈은 프랑스와 독일 경계선상에 있던 스트라스부르그에서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옮겨와 살고 있던 난민들을 위해서 목회자로 사역하였다.

그는 독일어를 잘 하지는 못했지만, 루터의 글을 라틴어로 읽었다. 루터의 계승자 필립 멜랑히톤과는 공적인 회의에서 여러 차례 만났고, 개인적으로 서신을 주고받았다.

칼빈은 루터를 존중하는 의미로 여러 차례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하나님께서 루터와 그 외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도록 횃불을 들게 하였고, 그들의 사역에 기초하여 우리들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지어졌다."

루터, 칼빈, 불링거 등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에서 비롯되었다.

오직 성경으로만 (sola scriptura)이라는 원리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다.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과 하박국 2장 4절에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으로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과 인간과 교회와 세상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계시는 모든 인간의 지식과 사상을 능가하는 절대적 기준이며,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람이 자신의 체험이나 지식을 평가해야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궁극적인 진리이며, 사람의 소리는 거짓일 뿐이다.

성경에 나오는 가르침에서 보면, 사람의 생각은 완전히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존하심과 계시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로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이런 계시의 교훈을 거부한다. 계시의 수용여부에 대해서 칼빈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구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계시만이 인간의 윤리와 삶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올바른 동기와 목적을 제공하여준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신 인간의 용어를 사탄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점차 성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큰 혼란이 초래되고 말았다.

종교개혁자들 사이에서도 미세한 부분에서는 합의된 해석에 이르기 어려웠다.

훗날 기독교와 자유주의 신학의 갈등도 이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언어로 표현되기에 참된 종교를 구별하기 어렵게 되었던 것이라 볼 수 있다. 〈계속〉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북새통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잠언 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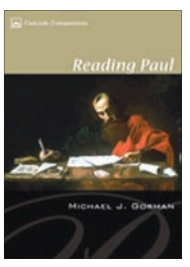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 추천

Voices from the Margin
Sugirtharajah, R.S. | Orbis Boo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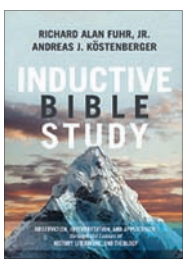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들, 제3세계에서 성경해석〉이란 제목의 이 책은 지난 1991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소위 제3세계, 또는 지구의 남반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소외와 고난의 상황에서 그들이 이해하고 말하고 싶은 성경에 대한 목소리들을 담고 있다. 책 말미에는 편집자가 쓴 지난 25년간 제3세계에서 성경해석학의 역사에 대한 글이 있다.

Reading Paul
Gorman, Michael J. | Cascade Boo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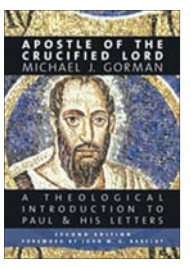
바울 개론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책. 보통의 개론서는 딱딱한 사실들만 지루하게 열거해서, 도데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초행자를 위한 책이라고 하지만, 사실 따라가기 버거운 분량 때문에 끝까지 못 읽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 책은 제목 그대로 바울 서신을 주제로 한 학자들의 연구 결과만 나열하는 것이 아닌, 바울을 스스로 읽을 수 있도록 해준다.

Inductive Bible Study
Fuhr, Al외 | B&H Publishing Group



이 책은 단순히 '어떻게 성경을 연구할 것인가'에서 멈추지 않으며, 그렇다고 '오늘 어떻게 살아야할 것인가' 처럼 피상적인 고민에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간결하고 명료하게 바이블 스터디 방법을 알려준다. 저자들에게 '바이블 스터디'란 성경이 역사적이고 문학적이며 신학적이라는 해석학적 전제에서 출발하여, 귀납적으로 탑을 쌓듯 해석을 향해 올라가는 것을 의미한다.

Apostle of the Crucified Lord, 2rd
Gorman, Michael J. | Eerdmans Publishing Co



마이클 고먼의 역작, Apostle of the Crucified Lord가 12년 만에 2판으로 등장했다. 저자는 우선 바울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들을 제공한다. 바울이 살았던 세계에 대한 정보,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 바울의 이력, 바울 서신들, 바울이 제시한 복음, 바울의 영성, 그리고 바울의 신학을 자세하고 광범위하게 설명한다. 그리고 난 뒤, 13편의 바울 서신을 심도있게 다뤘다.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LA : 기독교서적센타 T. (800)669-0451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REVIEW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가르칠 것인가?

예수님께서도 많은 비유와 이야기들을 사용하여 복음을 설명하셨다

많은 분들이 아이들의 뇌를 '스펀지'에 비유하곤 한다. 즉 옳고 그름을 스스로 분별치 않고(못하고), 정보와 지식들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의 선재적 지식과 경험으로 구성된 마음의 구조에 따라 그것을 다시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기억한다. 그래서 아이들은 논리적이지 않고 전혀 엉뚱한 질문을 한다. 그리고 때로는 동문서답을 하며, 그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대화들이 럭비공처럼 방향성 없이 돌아다닌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분별과 통합을 익혀가며, 개념들을 정리하고 이해하는 듯 하다. 그러나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 아이들과 대화하기란, 대단한 인내와 노력이 요구된다.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명제적 정의를 기억하기보다는 이야기와 스토리를 더 잘 기억한다. 그래서 어른들도 목사님의 설교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아도 예화는 잘 기억한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도 이것을 잘 아신 것 같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비유와 이야기들을 사용하여 설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중학생 정도 되어야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니 초등학생 저학년이 문제다. 사실 프로이트가 5세나 8세 이전에 모든 심리와 성격구조가 형성된다고 한 것은 경험적으로 매우 일리 있는 말이다. 우리나라 나이로 10살이 넘으면 자주성과 독립성이 나타나면서 권위에 대한 믿음과 순종, 신뢰

고따개비 마을의 비밀
류성렬
홍성사 | 256쪽

보다는 의심과 저항, 분별로 전환이 일어나 종교적 교육에 흥미를 잃고, 의심하고, 다른 이론들과 비교하고, 저항하고 불신하는 쪽으로 바뀌게 된다. 즉 우리나라 나이로 10살 이전 하나님과 종교에 대해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게 되느냐에 따라 '수용적 방향으로 갈 것인가?, 거부와 저항적 방향으로 갈 것인가?'가 1차로 결정되는 것이다.

이 책에는 19개의 창작동화가 나온다. 필자는 읽으면서 아이들의 관심과 이해수준에서 모티브를 찾아내 신앙과 인격의 교육적 이미지를 그려내는 탁월함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뿐만 아니라 중2 막내 딸에게도 읽어보라고 권했는데, 2시간 만에 뚝딱 읽어내더니 "이 책 참 좋아요. 쉽고 재미있어요"라고 대답했다.

주일학교 설교를 위해 만들어진 책이지만, 주일학교 목회자들이 읽고 설교로만 써먹는 책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같이 읽고 토론하는 책으로, 집에서 부모님과 읽고 대화하는 책으로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든다.

보고서와 논문은 '한 가지'를 이야기 하지만, 상징과 이미지는 그것에 관한 '모든 것'을 이야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미 주일학교에서 이 책을 사용하고 있다. 이 책을 읽고 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해, 사랑에 대해, 사랑과 섬김에 대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성실함과 책임에 대해 무한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다.

강도헌 기자
크리스찬북뉴스 운영자

[북스리뷰]

장로교회 신앙유산 탄생부터 발전 과정 재창조한 '가이드'

〈특강 종교개혁사〉, 499주년 종교개혁 기념일의 정점을 찍다

2016년 10월 31일.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 신학자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에서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한 날로부터 정확히 499년이 지난 이 날에, 무덤에 잠들어 있던 루터의 눈이 번쩍 뜨이게 할 만한 책 한 권이 (루터는 그 존재를 몰랐을) 한국 땅에서 출간되었다.

4년 전인 2012년 이미 〈특강 소요리문답〉을 펴냈던 저자는 4년 뒤 한층 더 창의적이고, 한편으로는 한층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돌아왔다. 지난 책에 비해 두드러지게 자기를 낮추고, 독자를 배려하는 겸손한 글쓰기가 눈에 띈다.

이 책이 탄생하는 여러 역사적 순간 중 하나를 함께 했던 내게 그 감회는 남다르다. 지난 2012년 초가을 쯤에 저자인 황희상 작가 일행이 당시 필자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다녀갔다. 이 짧은 시간에 나는 가이드로서 이들을 에든버러와 세인트 앤드루스에 소재한 스코틀랜드 교회사의 현장 몇 군데로 안내했다.

귀국 후, 그리고 이제 와서 책을 읽는 중에 알게 된 것은, 이들에게, 특히 저자에게 나는 그리 훌륭한 가이드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관심사가 서로 조금 달랐기에, 저자가 보고 알고자 했던 것과 내가 가이드로서 알려주고 전해주고 싶었던 것에 편차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그 짧은 기간의 답사 기간에, 저자는 가이드가 직접 안내한 곳은 물론, 소개하지도 않았던 현장과 건물, 문헌, 유적들의 의미를 재빠르게 잡아내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며, 이제 이들을 모두 이 경이로운 한 권의 책에 녹여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4년간 저자는 영국 이외에도, 다른 유럽대륙 국가, 즉 스위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을 누비며 역사의 현장을 재발견하고, 유산을 재발굴하고, 온·오프라인의 문헌들을 뒤졌다. 또한 그토록 힘들게 찾아낸 이 내용들을 책으로 정리해 내기 전에 수많은 강연을 통해 16~17세기 종교개혁, 특히 장로교회 신앙유산의 탄생과 발전 과정을 자기 방식으로 재창조해냈다.

이 책은 그 점에서 오직 한 길을 걸어간 순례자의 수고의 열매이자, 수년간 한 분야에 모든 수고를 바친 장인이 만들어낸 최고의 예술 작품이다. 내가 이 책의 장점으로 꼽으려 하는 내용은 이미 이 책에 실린 탁월한 두 편의 추천사, 저자 스스로 밝힌 독서 가이드, 출간 후 단시간 안에 여러 온라인 서점과 SNS 등에 실린 서평을 통해 많은 독자들이 밝힌 내용과 사실상 대동소이하다. 그만큼 특징과 장점이 선명한 책이다.

특강 종교개혁사
황희상
흑곰북스 | 400쪽

무엇보다, 400~500년 전 서유럽으로 독자인 여행자를 이끄는 이 가이드는 친절하다. 이미 이 시대에 대한 선지식을 갖고 있는 독자들에게는 확인하고 확신하도록 이끌고, 주제와 내용이 생경한 독자들에게는 반복과 점검이라는 장치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암기하고 기억하게 만든다.

ⓒ흑곰북스

가이드는 노련하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혀로 맛보고, 손으로 만지고, 코로 냄새를 맡고, 뇌로 상상하는 등, 여섯 가지 감각을 독자가 다 동원하도록 이끈다.

그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육감을 모두 사용한 독자는 읽는 것을 이미 깨달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놀란다.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에게 "읽는 것을 깨닫느냐?"하고 물었던 빌립의 물음에 간다게는 부정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었지만, 〈특강 종교개혁사〉를 읽은 독자는 긍정적으로 답할 수 있다. 간다게와는 달리, "지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사도행전 8장).

가이드는 치밀하다. 답사에 참여한 여행자가 어디서 지루해할지, 어디서 고개를 갸우뚱할지, 어디서 한숨을 내쉴지 모두 알고 있다. 그런 곳에는 어김없이 쉬어가기 페이지가 있다. 사진으로, 그림으로, 그래프로, 퀴즈로, 때로는 호소력 있는 설교로 여행자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부릅뜨고, 공감하게 만든다.

가이드는 집요하다. 그의 목표는 분명하다. 작가는 웨스트민스터 총회와 그 총회가 만들어낸 문서들이 종교개혁의 최고봉이라는 자신의 믿음에 독자들이 공감하기를 의도하고 바란다. 그렇기에 '특강 종교개혁사'라는 제목과는 달리, 사실상 내용은 '특강 장로교회사'이며, 더 구체적으로 '특강 웨스트민스터 총회 역사'다. 그러나 이것이 작가의 의도다. 여기에 설득된 여행자들이, 자신과 마찬가지로, 이 총회의 유산인 장로교회의 신앙과 실천을 '역사상 가장 잘 개혁된 교회의 신앙고백'으로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기를 소망한다.

마지막으로, 가이드는 세심하다. 그 누구보다도 장로교회 정치 및 개혁신학의 가치를 확신하는 가이드이자 작가이지만, 그는 자신의 확신을 독자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물론 그는 친절하고 치밀하고 노련하고 집요하기에, 자신의 이 확신을 독자와 여행자도 물 흐르듯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장치를 곳곳에 마련해 놓았다. 그럼에도, 그는 이 확신이 세뇌, 혹은 강요의 방식으로 수용되기를 원치 않는다. 무엇보다 역사를 잘 아는 그는 이런 방식의 수용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을 잘 안다.

따라서 저자는 스스로의 정체성이 장로교인인 개신교인에게는 자기 정체성을 재점검하고 확신케 하는 수단으로 이 책을 활용하라고, 다른 교단과 전통에 속한 개신교인에게는 장로교인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들여다본 후에 공감 어린 상호대화와 소통을 여는 도구로 이 책을 활용해 달라고 권한다. 어느 전통에 속했든, 독자는 저자의 이 세심한 권유에 마음이 끌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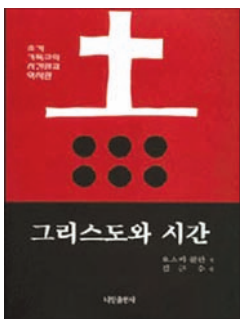
〈특강 종교개혁사〉 출간은 그렇게 2016년 한국에서 499주년 종교개혁 기념일의 정점이 되었다.

이재근 목사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인문 고전 읽기]

신약에서의 '영원'이란?

무(無) 시간이 아니라 '무한'의 시간



그리스도와 시간
오스카 쿨만
니단 | 330쪽

오스카 쿨만(Oscar Cullmann, 1902-1999)은 1902년 2월 24일 현재 프랑스령인 스트라스부르그에서 태어났으며, 루터파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1920년에 인문고교를 졸업하고 1920년부터 1926년까지 스트라스부르그와 파리에서 신학과 고전 언어학을 연구하였다.

1926년으로부터 1930년까지는 스트라스부르그 토마스 신학교 교장을 역임했고, 1930~1938년 스트라스부르그대학의 신약학과 교회사 교수로 지냈다.

1938~49년 스위스 바젤대학 신학부 신약과 교회사 교수 및 총장을 역임했으며, 1955년 미국에서 초빙을 받아 여러 대학과 신학교에서 강의했다.

그는 개신교 신학자로는 처음으로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공로로 바오로 VI세 연구소가 수여하는 공로상을 받았고, 1979년 프랑스 정부가 수여하는 문화대훈장(Ehrenlegion)을 받았다.

이 책은 쿨만의 대표적 저작으로, 초대 기독교의 시간관과 역사관이 특색있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다시말해 신약성서에서 영원이란 무(無)시간이 아니라 무한의 시간이다. 더욱이 시간은 헬라의 시간관과 달리 시작과 끝이 있는 하나의 직선으로 파악되고 있다(직선적 시간관).

따라서 시간과 영원에는 질적인 구별이 없으며, 유한한 시간과 무한한 시간이 그것을 구별한다.

그리고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의지)로 지배되고 있는데, 이 직선적 구속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파루시아)이라는 역사적 사건이다.

오스카 쿨만은 시간을 직선으로 해석하여, 구속사적 현재에 사는 인간은 그리스도의 지배에 복종한 모든 권위 아래 있는 이 세상의 국가를 긍정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악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

그리스도의 오심(초림)은 구속사에 있어 '단 한 번' 일어났다. 여기서 구약성서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준비의 시간'으로 해석된다.

쿨만은 구약과 신약을 약속과 성취로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창조부터 종말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심으로 본다. 그리고 '이미'와 '아직'의 구도로 종말론을 이해한다.

그는 신약 전체는 물론 바울 신학에서도 이러한 구원론적인 구도가 중심임을 강조한다.

정미현 교수에 따르면 신약성서를 통해 증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그 사건의 완성을 신학적 시간개념으로 가장 분명하게 강조한 신학자가 바로 쿨만이다.

구속사 학파를 대표하는 쿨만은 '역사로서의 구원'을 성서적 사고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로부터 새로운 창조로 이어진다.

때문에 구속사는 '기독교적 복음의 핵심'으로 표현된다. 구약성서와 마찬가지로 신약성서는 하나님이 그의 창조와 더불어 역사 안에서 무엇을 의도하시는가를 진술하고 있다.

그래서 쿨만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구속사에 대한 증언'이라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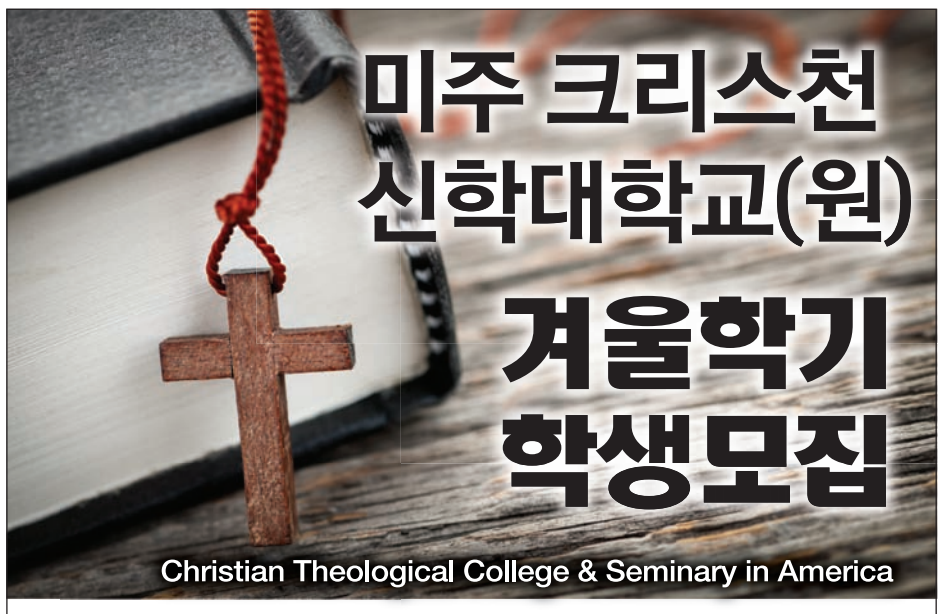
이 걸작은 기독교에 있어서의 시간관과 역사관에서, 헬라 철학 및 유대교적 사고방식을 거절하고, 신약성서의 구속사적 시간관을 그려낸 획기적 저작이다.

그러나 과연 영원과 시간 사이에는 질적인 구별이 없는 것인가? 그것은 단순한 직선에 불과한가? 등의 여러가지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송광택 목사
한국교회독서문화연구회 대표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크오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신학대학교
• B.A. 신학과

개강
12월22일

신학대학원
• M.Div 교역학 석사과정
• M.A. 목회학 석사과정
• Th.M. 신학 석사과정
•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Th.D. 신학 박사과정

1508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273-6031 | (213)235-6889

A newspaper of reconciliation led by the Holy Spirit

CHRISTIANITY DAILY

SUBSCRIPTIONS:
Don't miss out on the news!
To subscribe,
please e-mail us at
christianitydaily@gmail.com.

Tel. 213-739-0403 www.christianitydaily.com THURSDAY, December 8, 2016 Vol. 80

The gospel billboard has been installed on the intersection of 7th Avenue and 49th Street in New York City.

On a Billboard in Manhattan, 'God Is Love'

In Times Square of New York City, one can find a billboard advertising the gospel for the next few weeks. This advertising campaign has been launched by a Korean organization called 'Jeonham.'

The recent campaign began on December 5 and ends on January 29, keeping the billboards up in Times Square for eight weeks on the intersection of 7th Avenue and 49th Street.

The ad shows Korean actress Da Young Joo closing her eyes as though she is meditating, and says, "God is love and he DOES listen to prayers. Pray for your loved ones. Prayer can be a powerful gift."

On the first day that the billboard was posted, Joo and the evangelism team at Pilgrim Church worshipped together on the streets and began street evangelism. In the early morning, they prayed as they heard news that the installment of the billboard would be delayed due to weather conditions, and began street evangelism at 1:30 PM after the billboard was installed.

The evangelism team from Pilgrim Church, which also included Joo and the church's senior pastor Rev. Paul C. Yang, engaged in evangelism with gospel tracts translated in five languages (English, Chinese, Spanish, Japanese, and Korean).

The advertising campaign was made possible through prayer and support, and Jeonham plans to post more billboards in each of the five other major continents, including in Bangkok, Thailand (around February or March), Sydney, Australia (around April or May), São Paulo, Brazil (around June or July), Capetown, South Africa (around August of September), and London, UK (around October or November).

The campaign also includes partnering with local churches on the ground to share the gospel. Following Pilgrim Church, which shared the gospel on the first day of the billboard launch, YouYoung Presbyterian Church will also participate in street evangelism on December 17, followed by other churches each week.

"Please pray that through the gospel billboard that has been installed in Times Square that the aroma of Christ would spread in New York, and that street evangelism would go well, as they share the gospel with the Lord's heart who sought after that one lost sheep," Jeonham stated.

"Please also pray that through the billboard and evangelism efforts that that one lost sheep would return to the Lord's arms, and that as many churches and organizations partner together, all things would work for good and bring glory to God."

Earlier this year, Jeonham had also posted a gospel advertisement on a phone booth in Manhattan on Broadway and 47th Street from June 8 to July 24 for six weeks.

Jeonham is continuing its campaign to reach 10,000 supporters to share the gospel in six continents.

Revered Korean Pastor Rev. Won Sang Lee Passes Away at Age 79

BY JUNHYEONG KIM
TRANSLATED BY RACHAEL LEE

Rev. Won Sang Lee, senior pastor emeritus of Korean Central Presbyterian Church who has been a revered pastor and missions leader, passed away on December 5, at 5 AM.

Lee was diagnosed with stage 3 esophageal cancer in August 2015, and had been receiving chemotherapy until recently. However, he had difficulty breathing on November 28, at which point he began receiving treatment at Georgetown University's emergency room and intensive care unit until he had ultimately passed away.

Lee served as the senior pastor of Korean Central Presbyterian Church from 1977 to 2003 for 26 years, during which the church grew to become known as one of the healthiest and representative Korean mega-churches in the United States. Lee continued to serve in missions organizations after his retirement from KCPC, including through his roles as international director of SEED International, and as the founder of Prassion, a prayer mission organization which Lee established after his retirement. After receiving a diagnosis of esophageal cancer, Lee said, "Rather than fear, anxiety, or resentment about death, God gave me a heart of peace," and continued serving.

Lee was born in 1937. He received a bachelor's degree in philosophy from Keimyung University and a master's degree in philosophy from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fter which he moved to the U.S. to further his studies. He received a Th.M. with an emphasis in Old Testament studies from Dallas Theological Seminary, and started his position at KCPC while studying for his doctoral degree at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As Lee served at KCPC from 1977 to 2003, he founded SEED International and sent 11 missionary families. Lee also became the first Korean to lead an opening prayer at a U.S. House of Representatives meeting in 2002. After his retirement, he also received a Ph.D. at University of Wales in the U.K. at the age of 72.

A funeral service will be taking place on Friday, December 9 at the main sanctuary of Korean Central Presbyterian Church.

Rev. Won Sang Lee, pastor emeritus of Korean Central Presbyterian Church, passed away on December 5.

For Christmas, Crossway Community Church Focuses Efforts in Giving and Fellowship with Community

BY RACHAEL LEE

On Sunday, about 50 youth from group homes and volunteers from Crossway Community Church gathered at Cedar Grove Park to play sports and games, eat, and have fun together during this Christmas season.

The gathering is one of three to four outings that they have together each year with youth from Olive Crest, a non-profit which provides shelter, counseling, and foster care services for at-risk children, among other services. The outings began about five years ago as part of Crossway's efforts to be more engaged with the community.

"There's such a high turnover rate with clinicians and staff at group homes. It's unfortunate because the kids need something more consistent," said Jessica Cho, the director of the community engagement ministry of Crossway called the Six Eight Initiative. "We just wanted to provide a time for some unstructured fun, where the kids can just get out in the park. We also want to provide a respite for the staff."

As volunteers continually meet with the children through the park outings, they aim to be a positive influence and to simply love on the youth, Cho explained, rather than trying to do any proselytizing. Instead, Crossway keeps in touch with Chaplain Frank Fried, the teens' primary spiritual mentor at Olive Crest, to hear updates on how they are growing.

"Chaplain Frank tells us, it really takes a village to love these kids," Cho said. "No one can do it alone. When Chaplain Frank tells us about how the kids are growing, it's really encouraging. The kids do ask him why we hang out with them and why we do what we do, and Chaplain Frank ties that into who Jesus is."

The park outings are among the various things that Crossway members participate in through their partnership with Olive Crest. Crossway also holds backpack drives at the beginning of each school year, and Christmas gift drives.

The Christmas outing at the park was also one of many activities and events that are taking place throughout the month of December at Crossway as part of its 'Be Generous' campaign, a month of more community engagement projects and events, including giving gift cards for essentials to mothers and children who have experienced domestic violence; helping serve food to those who are homeless; and helping serve groceries to people in need.

Through the Six Eight Initiative, Crossway partners with several non-profit organizations throughout the year that are serving the community other than Olive Crest, including Serve the People, Future in Humanity, Home on the Green Pastures, Habitat for Humanity, Pathways of Hope, and Orange County Rescue Mission.

"It's important for a church to not only be relevant, but also be a resource to the community," said Cho. "Churches need to love on their community and the community needs to know that the church is a resource."

Members of Crossway Community Church and youth from group homes meet for fellowship several times each year. (Photo courtesy of Crossway Community Church)

Churches that are interested in doing more community engagement can start out by "thinking of the population they want to serve," and asking, "What are the needs of the community?" Cho explained.

"To be realistic, it has to be convenient," she said. "How can we serve the needs right here? Wherever we are, what can we do? It's about being a missionary to exactly where we live."

'Come and Learn About Providing a Foster Home to Children'

Korean American Family Services will be hosting a presentation for Korean families who are interested in being foster families. The seminar will take place on December 10 from 9:30 AM to 11:30 AM at the Korean American Family Services (KFAM) office in Los Angeles, and will offer information on the conditions and training processes required to become a foster family.

In particular, the seminar will feature families who have licenses to operate a foster home, who will share their experiences and the realistic issues that they faced. A woman who grew up in a foster home will also speak during the seminar, sharing her experiences and the importance of foster families.

"An average of about 37,000 children who are unable to live with their parents are under the protection of the LA County's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ervices every month, and among them, 800 are Asian American, and 60 to 100 are Korean American. We are in need of more foster families," explained Jane Lee, the project manager of KFAM's Asian American Foster Family Initiative.

KFAM launched its Asian American Foster Family Initiative in 2014, through which about 30 families received licenses to operate foster homes. These families have provided warm homes not only to Korean American, but also to White, African American, Latino American, and other Asian American children.

Those who wish to attend the seminar must RSVP due to a limited number of seats to jalee@kfamla.org.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Christianity Daily
A ministry through journalism
For questions about advertising and donations
T.(213)739-0403 F.(213)402-5136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30 AM & 11:30 AM
Sunday School: 11:30 AM
College Group Meetings: Fridays at 6 PM
Pastor Sung Chang
Charis Mission Church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www.charis.church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2:4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Jefferson: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Only Minority of Americans Morally Object to Assisted Suicide, According to LifeWay Study

A new survey by LifeWay Research found that a majority of Americans believe medically assisted suicide is morally acceptable.

About two-thirds of the people surveyed said that it was morally acceptable for terminally ill patients to seek medical help for swift death, and about the same number of people think doctors must be permitted to aid people to choose death.

"If they are facing a slow, painful death, Americans want options," said Scott McConnell. "Many believe that asking for help in dying is a moral option. They don't believe that suffering until they die of natural causes is the only way out."

About 69 percent of Americans say doctors need to be permitted to give medications to bring terminally ill patients to end their lives. Some 31 percent think otherwise.

As many as 88 percent of religious nones, 78 percent of those who attend church infrequently, 77 percent of graduation-degree holders, 73 percent of white Americans, 70 percent of Catholics, 64 percent of high school diploma holders, 53 percent of African-American, 53 percent of Protestants, and 52 percent of those people who attend church at least once a month were in support of removing restrictions on medically-assisted suicide.

Some 68 percent of evangelicals also thought that terminally ill patients must be allowed to seek assisted death.

"Traditional Christian teaching says God holds the keys to life and death," says McConnell. "Those who go to church or hold more traditional beliefs are less likely to see assisted suicide as morally acceptable. Still a surprising number do."

Similar studies have released similar statistics on Americans' position on physician assisted deaths. In 2015, a Gallup survey revealed that a majority of 68 percent of Americans were in favor of legalization of medically assisted suicide, while two years earlier only 53 percent of people supported it.

However, public opinion on assisted suicide has varied over the years. In a 2001 Gallup study, a greater proportion of 68 percent of Americans sided with medically-assisted suicide, but the support decreased to 53 percent in 2013.

Supreme Court Agrees to Hear Hospital Ministries Pension Case

The US Supreme Court will hear appeals in three separate cases relating to Christian-affiliated hospital systems that claim church exemptions from federal retirement and pension laws.

The non-profit hospitals including St. Peter's, Advocate Health Care Network, and Dignity Health are non-profit organizations that are faith-based ministries serving the poor, and have several branches employing thousands of people.

The Employment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 (ERISA) mandates retirement funds to be managed according to set standards so that employees receive their pensions consistently.

The employees working in these hospitals have accused their health care systems of working like big businesses under the garb of church affiliations so that that they can get away with lax regulations on pension reporting principles, by not being tied up with ERISA.

The hospitals claim that the lawsuits would force certain requirements on them which could endanger their mission to impart care to the poor.

When ERISA was approved in 1980, it had an exemption for churches and church-affiliated organizations, and hundreds of hospital systems around the country had applied for the accommodation.

The Supreme Court has agreed to hear a case regarding faith-based hospitals and their exemptions from federal retirement and pension laws. (Photo: Roman Boed / Flickr / CC)

However, the employees say that the hospitals do not fit under the categories specified in ERISA owing to their multi-denomination affiliations. They also say that these hospitals are basically large corporations only with loose religious ties.

"Congress did not, and had no reason to, allow giant businesses like Advocate to create their own ERISA-exempt benefit plans, simply because they claim a religious affiliation," said the workers.

The employees also alleged that the pension plan in Dignity Health, one of the hospitals sued, is underfunded by $1.2 billion.

The workers want retroactive penalties to account for failure of the hospitals to adhere to ERISA in the past, which could amount to millions or billions of dollars in addition to current liabilities which make the healthcare systems already short of funds.

"These suits seek billions in retroactive liability and a wholesale upheaval in the administration of pension plans affecting religious employers and employees across the country," said the appeals filed by three hospital systems.

Federal Court Rules Against Removal of 'In God We Trust' on U.S. Currency

BY CHRISTINE KIM

A district court in Ohio dismissed a lawsuit that demanded for the removal of the national motto "In God We Trust" from U.S. currency.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Ohio rejected the plaintiffs' claim that the motto violates the 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 of 1993, their right to free exercise and free speech under the First Amendment, and the right to equal protection under the Fifth Amendment's due process clause.

"Plaintiffs cannot demonstrate that the use of the motto on currency substantially burdens their religious exercise," Judge Benita Pearson wrote in a ruling on Wednesday. "Credit cards and checks allow Plaintiffs to conduct the bulk of their purchases with currency not inscribed with the motto. And for cash-only transactions, such as a garage sale or a coin-operated laundromat, the use of the motto on currency does not substantially burden Plaintiffs' free exercise."

"No reasonable viewer would think a person handling money does so to spread its religious message," Pearson continued.

"We're grateful that the court upheld the federal government's ability to display our National Motto on our currency," president and CEO of First Liberty Institute Kelly Shackelford said in a statement.

"Federal courts have repeatedly upheld the National Motto as constitutional. 'In God We Trust' is deeply embedded in our nation's history and is a symbol of patriotism."

The lawsuit was filed by Michael Newdow and Ohio attorney Thomas M. Horwitz on behalf of several "atheists, their children, and religious persons." Newdow, an attorney and emergency room doctor, filed similar lawsuits regarding the motto in the past. Others involved unsuccessful attempts to remove the phrase "under God" in recitations of the Pledge of Allegiance.

Prayer Vigils Held for Oakland Warehouse Fire Victims

Prayer vigils were held for victims of the Oakland warehouse fire around the city, as churches remembered the victims and prayed for them and their families.

The fire which occurred on Friday night at the converted warehouse was packed with 50 to 100 youth and young adults dancing to electronic music and claimed 36 lives.

"The fire was horrendous," said the Rev. Cameron Partridge, 43, a priest at St. Aidan's Episcopal Church, "and we're realizing increasingly that there were a number of trans folks there that were part of our community."

"They were amazing and I'm sorry for everyone's loss," said Genevieve Griesau, whose four friends were still missing after the fire. "It's mind blowing, heart breaking."

The fire had broken out in the left corner of the building on the second floor, which gutted the two stories of Ghost Ship located at 1305 31st Ave. at International Boulevard, in Fruitvale neighborhood.

"Their pain in many ways is our pain too. The loss of these young people is the loss of all of us," said Father Martin Jose Ibarra of Saint Elizabeth Church a few blocks away from the warehouse.

Members of the community put flowers at a nearby fence to pay respects to the victims, and gathered at the Chapel of the Chimes which is a crematory and columbarium in Oakland, located at 4499 Piedmont Avenue.

The Billy Graham Rapid Response Team also sent chaplains to Oakland early Saturday morning to assess the best possible means by which they can help the community affected by the tragedy, and to comfort the mourning friends and relatives.

The fire department spent hours trying to put out the fire, which caused the roof of the building to collapse.

The search and rescue operation at the building was wrought with complications as they had to take care of the collapsing second-story roof which fell on the first floor.

"We had firefighters with basically coveralls and buckets and shovels taking bits of debris out into the vacant lot to be loaded into dump trucks and removed to an off-site location," said Oakland battalion Fire Chief Melinda Drayton.

The fire started at around 11:15 pm at night, and the fire department arrived 3 minutes later.

"This is a devastating loss to our community and our thoughts and prayers go out to those affected," said Marcie Russell, general manager of the Chapel of the Chimes.

Sunday Services: 9 AM & 11:15 AM
Children's Ministry: 9 AM & 11:15 AM
Youth Group Service: Sundays at 11:15 AM
Pastor Keith Park
Church of Southland
1380 S. Sanderson Ave, Anaheim, CA 92806
T. (714) 209-7349 / churchofsouthland.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Brea Campus Service Times: 9:30 AM, 11:30 AM
Irvine Campus Service Time: 10:30 AM
Pastor Steve Choi
Crossway Community Church
Brea: 695 Madison Way, Brea, CA 92821
Irvine: 100 Honors, Irvine, CA 92620
T. (714) 529-5551 / crossway-church.com

Sunday Services: 9 AM & 10:45 AM
Children's Ministry Services: 9 AM & 10:45 AM
Youth Services: Sundays at 9 AM, Wednesdays at 6:30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0:45 AM
Pastor Tim Park
Evangelical Free Church Diamond Bar
3255 S. Diamond Bar Blvd, Diamond Bar, CA 91765
T. (909) 594-7604 / www.efreedb.org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 gsch.org

Sunday Services: 9 AM & 11 AM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Pastor Sam Koh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la.org

Sunday Services: 9:45 AM
Pastor Phil Kim
The Home Church
19271 Colima Rd. Suite A/B,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384-1393 / thehomechurchrowland.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clafgc.com

Sunday Services: 9 AM & 11 AM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Sunday Services: 10: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0:30 AM, 12:15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2:15 PM
Pastor Kiwon Suh
New Life Vision Church
4077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323) 373-0110 / www.nlvc.org

Sunday Services:
8:30 AM, 9:45 AM & 11:15 AM
Pastor Paul Kim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1831 South El Camino Real Encinitas, CA 92024
T. (760) 753-2535 / www.redeemersd.org

Sunday Services: 1 PM
Youth Group Services:
Sundays at 11 PM, Thursdays at 7 PM
Pastor Daniel Han
Restore Fellowship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 www.ladongsan.com

Broadway Campus Sunday Services:
9:45 AM, 11:15 AM, 12:45 PM
Jefferson Campus Sunday Services:
9:30 AM, 11:30 AM
Pastor Michael Lee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fferson: 150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 ynccla.org

특별 이벤트

PRO-Z USA에서는 그동안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특별 이벤트를 실시하오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소중한 분들에게 선물하세요

한병 더

절호의 찬스
지금 구매하시면!
3병 +(1병 Free)
$267+Tax

*가까운 약국이나 건강식품점에서 구입하세요!

WHO is he?
개발자 송문기 박사
UCLA 의과대학 연구 교수
미, 재향 군인 병원, 수석 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에 등재
40년간 당뇨연구에 매진한 대한민국 대표 과학자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Metabolism, Vol 47, No 1(January),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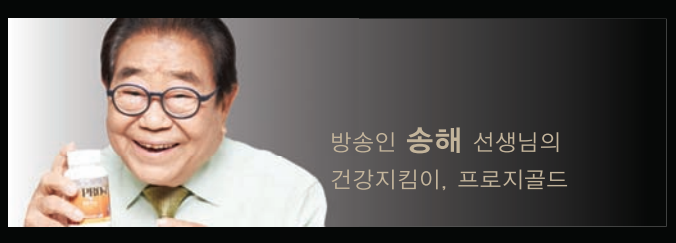
Zn Cr Zn Cr Zn

HIGH QUALITY 100% 천연성분

프로지 골드
PRO-Z GOLD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인슐린의 저항성을 낮추어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과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문의전화 213. 434. 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